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보스톤 총선투표 본격시작

보스톤 총영사관 투표소  
주말에도 투표, 4일까지  
크라운 호텔에 무료주차  
반드시 영주권, 여권 지참



30일 투표소에서 엄성준 총영사와 남궁연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대 총선 재외선거투표가 30일부터 뉴튼소재 보스톤총영사관에서 시작됐다. 30일 8시 엄성준 총영사내외가 보스톤지역 첫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총영사관은 이번 투표를 위해 총영사관 바깥

과 안에 선거의원들을 배치해 재외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투표를 위해 영사관을 방문하는 경우 총영사관 바로 옆 크라운플라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표후에는 1시간 주차권을 받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들은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국민인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과 영주권을 동시에 지참해야 한다. 투표장 입구에는 자신의 속한 지역구 후보자들의 명단과 야권 단일화 등으로 없어진 후보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부  
▶▶2면으로 계속

## 4월의 눈, 기록은?

97년 만우절 폭설 무려 2피트  
가장 늦은 눈은 77년 5월 10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번 주 일요일 4월 3일 보스톤의 최저 기온이 화씨 10여도로 내려가며 일요일 월요일에 걸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스톤의 4월 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웨더스파크닷컴(Wetherspark.com)의 보스톤 4월 눈 기록을 살펴보면 4월 1일에 눈이 내릴 확률이 13%로 가장 많으며 4월 말이 될수록 적설량은 높았다. 일반적으로 4월에 눈이 오는 경우는 적지만 최소한 4년에 한 번 꼴로 눈이 내리는 것으로 기록됐다. 4월의 눈은 무거운 습설로 단전, 단수 등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

4월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은 1997년 4월 1일 만우절 폭설이다. 3월 30일 65도를 기록하며 따뜻한 날이었으나 3월 31일부터 기온이 급감하며 4월 1일까지 무려 2피트에 달하는 습설을 퍼부어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1987년 4월 29일에는 보스톤을 비롯한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4월 비수기 출발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790**  
델타 항공 (Only 1 Stop)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Toll Free)/617.424.8956

\*\$790는 델타항공이며,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항공편입니다. 2016년 4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동시에 2016년 4월 6일 전까지 발권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요금은 여행일정, 항공사,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Law Office,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onjasa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 전 중앙일보 지사장 사기혐의 법원 기소

4월 6일 우편 지법에 출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전중앙일보 지사장이자 현 아시아타임스 발행인인 박씨가 2월 29일 우편지법에 사기로 인한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우편 지법은 4월 6일 박씨를 출두시켜 기소사실을 알리고 범죄인정 여부를 심문하는 어레인먼트를 진행한다.

경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김영중에게 페리카나 프랜차이즈 운영권을 주는 계약으로 5만불 중 3

만5천불을 받았으나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편 경찰서 형사과 마이클 웰스 형사는 박씨를 심문한 결과 페리카나의 이름이나, 로고, 건설계약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계약서나 증거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웰스 형사는 또 기소장에 뉴욕 페리카나 동부총판 이윤수씨와 대화한 결과 박씨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9일 보스톤

조선)이란 제하에 보도된 바 있다.

사기로 인한 절도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이하의 감옥 또는 최대 \$2만5천불이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스티븐 김 변호사는 “집행유예 1년 정도를 선고 받는 것이 최상의 케이스” 라고 밝혔다.

박씨는 6일 심리에서 유죄 인정여부에 따라 정식 재판절차 또는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 재외 국민 지원 투표가 좌우

▶▶1면에 이어서

재자들은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투표가 가능하지만 영주권자들은 정당투표만 가능하다.

임성준 총영사는 “보스톤의 수준 높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행사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하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한국뿐만 아니라 재외한인들의 권리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고 강조했다.

2번째로 투표한 남궁연 보스톤 지역 재외선관위장은 “재외투표의 부진으로 인해 지난 첫 재외선거에 비해 예산이 급감했다. 이 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재외국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투표로 좌우된다” 고 밝혔다. 남 선관위장은 “한인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미국 유권자만해도 100만이며 대선으로 보면 절반만 투표해도 당락을 좌우할 만한 엄청난 수이다. 그래야만 한국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고 아쉬워 했다.

현저하게 삭감된 예산으로 20대 총선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오진관 영사는 “19대 총선당시에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진행 인력 3명과 그외 20여명



투표소 입장 전에 해당 지역구 후보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는 유권자들

의 보조요원들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충분한 선거 독려 홍보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고 밝혔다.

이번 20대 선거 보스톤 지역에서 등록된 유권자는 1399명으로 전체 선거권자의 8.7%이다. 영사관에 따르면 보스톤지역 등록율은 미주 전체 상위권에 속한다.

30일 투표를 마친 김완태씨(브루클라인)는 “워싱턴에서는 한시간을 가야 했는데 보스톤에서는 투표하기가 쉬웠다. 주차도 편하고 좋았다” 고 밝혔다. 보스톤에 온지는 4개월 정도 됐다. 김씨는 샌디에이고에서 보스톤으로 이사온 후 가족과 함께 투표하러 투표소를 찾았다.

editor@bostonkorea.com

# 4월의 눈은 무거운 습설로 단전, 단수 등 많은 피해

▶▶1면에 이어서

뉴잉글랜드 지방에 21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다. 폭설 이틀 전에는 무려 70도 까지 올라갔던 더운 날씨였다. 이 습설은 전선과 나무를 쓰러뜨려 우스터, 프레밍햄, 매리맥벨리 인근 40,000여 가구에 전기를 차단시켰다. 지난 2002년에는 4월 25일에 눈이 내렸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스톤에서 눈을 측정하기 시작한 126년 역사상 가장 늦은 눈은 1977년 5월 10일 눈이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폭설에 눈을 치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보스톤 주민 모습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믹스(miXx)의 위글위글 공연 관객들 함성으로 와글와글

해마다 커져가는 믹스의 정기공연  
300여명 관객 앞에서 위글위글  
Sorry Sorry, Gee 등 20여곡 선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대학 (Boston University, 이하 BU)의 댄스 커버 동아리 믹스(miXx)는 매년 늘어나는 관객으로 올해 처음 '싸이(Tsai) 퍼포먼스홀'로 자리를 옮겨 정기공연을 진행했다. 다 인종으로 구성된 이 동아리는 매 정기공연 때마다 큰 호응을 얻어왔다.

믹스는 지난 27일 약 300여명의 관객이 입장한 가운데 2시간동안 펼쳐진 공연에서 싸이의 최신곡 '나팔바지'를 시작으로 슈퍼주니어의 'Sorry Sorry', 소녀시대 'Gee' 등 최근 사랑 받았던 곡들과 케이팝을 대표하는 그룹들의 노래 20여곡을 소화했다.

방탄소년단의 'I need you',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등으로 1부 순서를 진행한 믹스는 헬로비너스의 '위글위글'에서 장내 분위기를 급격히 고조시켰다. 곡의 1절에서 여성 멤버들의 섹시한 안무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

오른 무대는 2절에서 등장한 남성 댄서들이 화려한 복근쇼를 연출, 여성 방청객들의 쏟아지는 함성을 받았다.

댄스 커버를 주로 하는 믹스지만, 정기공연 때 마다 노래도 선보였던 믹스는 이번 공연에서도 세 곡의 노래를 불렀다. 애프터 스쿨의 '너 때문에' 무대에서는 기타를 연주하며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된 노래를 불렀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에서는 발라드 버전을 부르다 갑자기 댄스버전으로 전환되는 등 다채로운 무대 표현을 시도했다.

친구가 공연에 참여해서 보러왔다는 딸린씨와 에밀리아씨는 이번 공연이 너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들은 "케이팝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보여준 적이 있어 알고있는 곡이 있다. 뮤직비디오의 완성도가 뛰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1.앵콜곡으로 소녀시대의 'Gee'가 무대에 오르자 관객석은 크게 환호했다. 2.믹스의 흐트러지지 않는 화려한 군무는 이들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는 것을 증명했다. 3.남성 댄서들이 화려한 복근쇼를 연출하자, 여성 방청객들의 쏟아지는 함성을 받았다

BU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케빈씨는 자신은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한다고 밝혔다. '양준영'이라는 한국어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그는, 오늘 공연 중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가장 인상 깊었다면서 다음 믹스 공연도 꼭 보러 오고 싶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비(非)한국인으로 구성된 믹스의 많은 멤버들은 관객 케빈씨처럼 BU의 한국어 강좌나 한국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한국어로 소화한

노래가 비록 서투르게 들릴 수 있는 한국어 발음이었지만, 연예인들의 화려한 무대만을 쫓는 것이 아닌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그들의 열정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믹스 최초의 한인계 회장인 허정민씨는 "Tsai 퍼포먼스 홀"에서는 처음하는 공연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관객들이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올해 졸업

무사히 잘 마쳐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믹스 멤버들이 케이팝을 계속 사랑하고 믹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공연 관련 영상은 믹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 'BU miXx K-Pop Cover Dance Crew' (<https://www.youtube.com/user/BUmiXxKPopDance>)에 'miXx It Up! 2016'으로 공개 될 예정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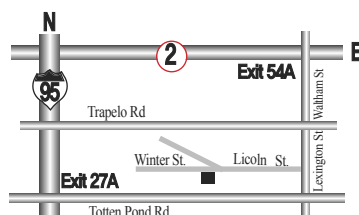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 SAT Plus Spring 2016 Schedule

Class	Time
SAT II MATH I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9:00 AM - 11:00 AM
SAT II / AP Chemistr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11:30 AM - 1:30 PM
SAT II / AP Biology	Start 3/12/16 - 5/28/16 Saturdays 2:00 PM - 4:00 PM
SAT II MATH 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4:30 PM - 6:3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입양아 친목모임 한국 미혼모와 출생아동 돕는다

보스톤 한국계 입양아 친목모임 캐드토크  
6월 4일 한국 미혼모 지원 위한 모금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계 입양아 친목 모임이 한국 미혼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혼전 출생아들의 미국 입양을 선택하는 한국 미혼모들에게 자신과 자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계 입양아 친목모임 캐드토크(KADtalk)는 오는 6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브라이언트 소재 TPSF 커뮤니티센터(The Presentation School Foundation Com-



입양아 친목모임 캐드토크(KADtalk)를 주도하는 한국계 입양아인 김새봄씨

munity Center, 640 Washington St.)에서 성금 모금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모인 후원금은 모두 미혼모 협회에 전달된다.

이날 성금모금 행사에서는 미혼모에 관한 영화로 호평을 받은 "A Bittersweet Joke"를 관람한다. 이후 스카이프를 통해서 한국 미혼모가족협회(Korean Unwed Mothers Families Association, KUMFA) 목경화 회장, 입양 자원봉사자 새년 하이트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의 사회는 보스톤칼리지의 아리사 오(Arissa Oh) 교수가 맡는다. 아리사 오 교수는 한국 입양 역사를 담은 『한국 아동을 구제하자』의 저자이다. 또한 육아 전문가이며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의 저자인 조세핀 김(Josephine Kim) 하버드대 교육학과 교수가 이번 모임의 고문으로 도움 예정이다.

한국미혼모 가족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매년 1,000명 넘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 그 중 90%가 미혼모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한국사회에서 터부시 되는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이

다.

2007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미혼의 임신부가 100명 중 9명은 유산을 하고 4명만 출산을 한다. 미혼모 출산 4명 중,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차별로 결국 세명은 아이를 포기한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한국에서 미혼모의 자녀양육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사회적 편견과 가족들의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계 입양아인 김새봄(Saebom SooHoo) 씨가 주도하는 입양아 친목모임 캐드토크는 보스톤 지역에 있는 약 10여명의 입양아들이 격달로 한번씩 만나 책을 읽고 서로 교류하는 모임이다.

김새봄씨는 대구에서 태어나 생후 3개월 후 미국으로 입양됐다. 당시 김 씨의 어머니는 미



행사의 사회를 맡은 보스톤칼리지의 아리사 오 교수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의 저자인 조세핀 김(Josephine Kim) 하버드대 교육학과 교수

혼으로 새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입양 수속을 마쳤었다. 김 씨는 한국의 미혼모들이 그의 생모처럼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떳떳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이번 성금모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새봄은 보스톤에 정착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다.

김씨는 "이번 성금모금 행사에 많은 자원봉사자와 한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부탁했다. 이번 후원모금에 대한 정보 및 진행과정은 <https://kumfundraiserboston.wordpress.co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한인들은 KADtalkboston@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즈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용수용지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정관장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치유 보습으로 피부의  
기초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비밀스러운 처방

동인비 제품 \$100 이상 구입시  
동인비 볼링볼 오일볼 무료증정  
Free Gift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주문후 24시간 이내에 발송되며,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다주토도 배송 해드립니다.



#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 과학 기술관련 전공 OPT 2년 연장

5월10일부터 발효 최장 36개월, 전공분야도 확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토부는 오는 5월 10일부터 미국내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공자(STEM)들의 OPT 기간을 최장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연방 법원이 STEM OPT 기간 17개월 연장규정을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5월 10일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백악관의 승인을 거쳐 기존 연장규정보다 7개월이 더 길어진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STEM OPT 연장규정을 확정함에 따라 STEM 전공 OPT 참가자들은 1차 12개월에 이어 2차로 24개월 연장까지 합쳐 36개월까지 OPT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기업 취업이 가능해졌다. 이미 17개월 OPT 연장을 받은 참가자들은 17개월 중 남은 기간에 대해 120일까지 연장이 허용되며 새 규정에 따른 재신청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날 확정 발표한 새 OPT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STEM 전공분야 리스트에 따르면 전공의 수가 확대됐고, 분야도 보다 분명해졌다. 여기에는 STEM 전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뿐 아니라 4가지 핵심 분야에서 파생된 이공계 전공분야가

지 총망라되어 있어, STEM OPT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 학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확정 발표된 전공분야는 240개 관련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특히 사회심리학이나 성격심리학, 교육평가 연구 등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과 인접한 전공분야도 STEM OPT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공과목으로 명시했다. 또 군사 및 무기 관련 분야를 스텔스 기술, 해저 전투 관련 무기 전공, 폭발물 해체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공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은 새롭게 시작되는 STEM OPT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고용주들의 이해를 돕고자 STEM OPT Hub 를 만들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서픽대 한국문화 클럽 푸드 밉고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픽대 한국문화클럽은 4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서머셋 카페(Somerset Café)에서 푸드밉고 게임을 개최한다. 한국문화클럽이 국제학생협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 이벤트는 숫자 밉고 대신 여러가지 한국음식을 맛 취가며 밉고게임을 하게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미 육군 지원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

지금 전화하세요  
**781.330.6043**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백은세 Eun Se Baik

**Graphic Designer**  
정한용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용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희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인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부활 기쁨 나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3월27일 렉싱턴 소재 성요한교회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주관으로 드려졌다. 예년에 비해 부활절이 2~3주 앞당겨진 탓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뉴잉글랜드 지역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지역 교민들이 함께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 날 예배는 협의회 부회장 유경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협의회 회장 김용환 목사는 “그분을 만났나요?”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보여준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고 촉구했다. 안혜영 집사가 지휘하고 배연정 집사가 반주한 북부보스톤교회와 성요한교회 연합 성가대가 찬양을 맡았고, 북부보스톤교회의 임마누엘 성가대는 헌금특별 찬양을 담당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매년 부활절을 맞아 장학금을 선발하여 학생들을 격려했는데 올해도 다섯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일을 위해 뉴햄프셔한인교회, 보스톤한인교회, 북부보

스톤교회, 무명 1명이 장학금을 기부 해주었다.

예배는 보스톤제일교회 장영규 목사(협의회 직전회장)의 축도로 마쳤으며, 예배 후에 나사렛사람의교회가 준비한 음식으로 친교시간을 가졌다.

교회협의회는 오는 5월1일 북부보스톤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뉴잉글랜드 한인교회협의회는 이 지역 교회들의 선교 활성화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45개 교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에 개최된 뉴잉글랜드 과기협 수학경시대회 학년별 수상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수학경시대회 온라인 등록 4일로 마감연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과학 기술자 협회 뉴잉글랜드 지부는 수학경시대회 등록 마감을 4일로 연장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경시대회는 4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MIT(B 35-225)에서 개최한다.

수학 경시대회는 매년 미국 내 4-1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전역에서 동시 개최하는 행사이며, 뉴잉글랜드 지역 대회는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의 주최 및 주관 하에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 및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가 함께 공동주최한다.

과기협에 따르면 수학경시대회는 매년 참가 학생수가 2,000명을 넘는 대규모 행사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매년 150여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수상자는 전미 수상자 후보로 자동 선정되며, 매년 뉴잉글랜드 지역의 상당수 학생들이 전미 상위권에 랭크 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과기협 웹사이트에서 4월 2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경시대회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온라인으로 등록시 \$25이며 현장 등록시 \$30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예제 및 정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출제문제를 예상해 경험해 볼 수 있다.

행사당일 12시부터 1시까지 등록을 받고, 1시부터는 시험규정 설명, 그리고 2시부터는 시험이 시작되어 3시 반까지 1시간 30분동안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후 5시 15분부터는 시상식이 시작된다.

매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과기협 이현희 회장은 “올해도 다양한 강연을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고 메일을 통해 밝혔다.

일시: 2016년 4월 9일 (토) 1시  
장소: MIT Building 35 Room 225, 127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bostonkorean@hotmail.com

## 시민협회 정치 인턴 모금 만찬 9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는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렉싱턴에 위치한 엘크스 클럽 (Elks Club)에서 차세대 정치 인턴 지원을 위한 장학금 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시민협회는 올해 대학생 3명, 고등학생 7명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의 정치 인턴을 선발했다. 이들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사무실, 미셸 우 보스톤 시의회 의장 사무실, 테키 첸 주-하원의원 사무실, 르랜드 청 캠퍼리지 시의원 사무실에 배치되어 방학동안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시민협회 정치 인턴장학생 모금 만찬의 참가비는 일반인이 \$60이며 학생 및 시니어의 경우는 \$30이다. 이 행사에 대한 문의는 이경해 회장 (508-962-2689), 혹은 김성균 이사장(617-799-7033) 및 임근택 사무차장 (kyuntaek001@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은 “시민협회의 연중행사인 이번 18회 정치모금 만찬 행사에 부디 참석해 우리 차세대들에게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의지와 성원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일시: 토요일, 4/9/16, 6시



기조연사로 연설할 고원영 연방 검사실 변호사

장소: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781-862-9759

hsb@bostonkorea.com

## 도에 작가 이재옥 씨 전시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세라믹 아티스트 이재옥 씨의 전시회가 3월 25일부터 4월 31일까지 보스톤 소재 라누에인아트갤러리(Lanoué Fine Art Gall)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주로 옛 무덤을 지키는 신상 호석(Guardian)을, 다산을 상징하는 호석 등 비롯해 한국의 정서를 깊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4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리셉션이 열린다. 이재옥 작가는 지난 1998년 작품전시회를 시작으로 매년 두세차례 전시회를 가지며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다.

Lanoué Fine Art Gallery (www.lanouefineart.com) 450 Harrison Ave., No. 31 Boston, MA 02118 617-262-4400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보스톤에서 열리는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이 선수를 주목하라

김연아 선수 이후 최초로 한국 선수 2명 진출 쾌거  
 아사다 마오, 패트릭 찬, 그레이시 골드 등 출전  
 보스톤 세계 선수권대회는 설욕의 장이 될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피겨팬들의 시즌 최대 이벤트, 세계 피겨 선수권대회가 지난 30일 수요일, 아이스댄싱 쇼트와 남자 싱글 쇼트를 시작으로 5일간의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는 여러 선수들에게 재기의 장으로 꼽히고 있다. 피겨여제 김연아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세계 선수권을 통해 과거의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고, 14년 보스톤에서 열린 전미 피겨에서 3위를 기록하고도 올림픽 선발에서 탈락한 일본계 미국대표 나가수 미라이에게도 올림픽에서 풀지 못한 한을 풀 기회이다. 3회 연속 세계선수권을 우승하며 남자 피겨 1인자로 군림했던 '패트릭 찬' 도 '하뉴 유즈루'에게 빼앗긴 소치 올림픽의 복수를 노리고 있다.

한편, 한국선수들은 평창올림픽에서의 성공을 위한 시험대에 올랐다. 세계 선수권 대회 직전에 열린 4대륙 대회에서 한국의 박소연이 4위로 개인 최고점을 기록했고, 시니어 무대에 첫 발을 내딛은 최다빈도 심사위원과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성 피겨의 이준형이 프리 킷통과를 노리고 있고, 페어에는 김레베카-키릴 미노프조가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처럼 1년을 기다린 피겨팬들을 잠 못 들게 할 보스톤에서 열리는 세계 피겨 선수권대회를 빛낼 스타들을 미리 만나보자.

**주목할 선수 - 주목할 점**

**<남자 싱글>**

- **하뉴 유즈루 (일본 / 94년생)**: 피겨계의 아이돌. 현 세계 신기록 보유자 (330.43). 소치의 영광(우승)을 보스톤에

서 재현한다. 하비에르 페르난데스와 함께 김연아의 전 코치인 브라이언 오서의 지도를 받고 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하비에르 페르난데스 (스페인 / 91년생)**: 성인 선수가 3명뿐인 불피겨 불모지에서 꽃 핀 선수. 한국의 피겨계 상황과 비슷한 것과 브라이언 오서 코치를 영입 후 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을 두고 한국의 피겨팬 중에서는 스페인의 김연아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유럽 선수권 4년 연속 우승의 기세를 보스톤까지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선수다.

- **패트릭 찬 (캐나다 / 90년생)**: 중국계 캐나다 선수로 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에 그쳤다. 11,12,13년 세계선수권 3회 연속 우승 및 세계 신기록으로 소치올림픽 강력한 우승 후보였으나 특기인 4회전 점프에서 실수를 하며 하뉴 유즈루에게 금메달을 넘겨줬다. 소치에서 구겨진 세계 챔피언의 자존심을 스톤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자 싱글>**

- **박소연 (한국 / 97년생)**: 김연아 키즈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점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쇼트프로그램에서 큰 실수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보스톤 대회 직전에 열린 4대륙 대회(비 유럽권 선수 대회)에서 보인 4위의 선전을 보스톤에서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 **최다빈 (한국 / 2000년생)**: 보스톤 대회 직전에 열린 본인의 첫 성인대회였던 4대륙 대회에서 8위에 올랐다. 점프시 칼날 사용이 정확하고, 고난도 기술을 잘

성공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표현력과 예술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제 갓 시니어무대에 오른 어린 선수가 세계선수권의 큰 긴장을 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그레이시 골드 (미국 / 95년생)**: 중국의 리지준과 함께 김연아 선수의 광팬으로 유명하다. '07년부터 10년간 미국 선수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미국이 기대하는 유망주. 3회전 연속점프를 뛰는 귀여운 금발소녀라는 점에서 예능적 측면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본인이 메사추세츠 뉴튼 출생이라 본인의 이름처럼 고향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 (러시아 / 99년생)**: 현재 피겨점수 채점의 흐름이 예전보다 지나치게 높게 채점되어, 여자싱글 역대 3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점수만큼 크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NBC의 해설자도 그가 내년에는 한물 같 것이라는 예상을 한 상태. 여자싱글을 리드하고 있는 그가 실력으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미야하라 사토코 (일본 / 98년생)**: 차세대 아사다 마오로 주목받고 있다. 나이는 어리지만 좌, 우 양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스텝등의 비 점프요소가 상당히 좋다. 다만 일본 선수 특유의 롱엔지(점프 시 잘못된 칼날 방향 사용)와 회전수 부족의 고질병이 이 선수에게도 적용된다. 신장 149cm의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itshunne@boston.korea.com



4대륙 대회 4위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박소연은 트리플 살코-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서 큰 감점을 받으며 쇼트에서 22위를 기록했다



명예회복을 노렸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첫 회전부터 넘어지며 쇼트에서 일본선수중 최하위인 9위를 기록했다



여자싱글에서 세계선수권과 인연이 없었던 미국은 '그레이시 골드'가 고향 보스톤에서 기분좋은 쇼트 1위를 거머쥐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건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일본 문화의 수출 현장, 애니메보스톤이 안긴 축제

2만명 이상의 일본만화팬 몰려 성황리에 폐막  
500여개의 세부 이벤트, 일본문화에 다각적인 조명  
미국에 걸음마를 댄 한류의 인기에도 방향성 제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축제, 애니메보스톤(Anime Boston)은 일본 만화 문화의 수출이 어떻게 미국으로 상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주소였다.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하인츠 컨벤션 센터와 웨라톤 호텔에서 열린 애니메보스톤은 일본 만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화인물 의상, 만화영화 상영, 일본 만화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 강연 등 500여개의 이벤트가 준비됐다.

애니메 보스톤은 2003년 시작으로 매년 봄에 개최되어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제 1회 행사에서 약 4천 명이 입장으로 시작한 뒤 매년 이벤트마다 입장객이 증가 하며 작년 행사에서는 약 2만6천 명이 입장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입장객은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보스톤에서 매년 개최되는 게임 관련 이벤트인 팩스 이스트(Pax East)를 제치고 보스톤 피닉스가 선정한 보스톤 최고의 너드 이벤트(Best Nerd Gathering)로 뽑혔을 정도다.

올해 행사에서도 일본에서 초대된 애니메이션 관련 업계 인물 및 성우, 가수 등 8팀이 초대되었다. 카드캡터 체리 (Card Captor Sakura), 데스노트(Death Note) 등으로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매드하우스'의 前 설립 멤버 '마루야마 마사오' (現 MAPPA 창립자), 일본 1세대 아이돌 성우 출신

신으로 '드래곤볼'의 '피콜로' 역으로 잘 알려진 '후루카와 토시오', 1988년에 데뷔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CM송과 애니메이션 OST에 참가해 온 2인조 그룹 (ALI PROJECT) 등이 대표적이다.

### 300여개 업체 참가, 2차 창작은 재패니메이션의 힘

애니메 보스톤의 전시 판매장에는 만화관련 일반 상품인 굿즈 판매 업체와 일러스트 및 아티스트팀이 각각 150여개 팀 씩 총 300여개 팀이 참가했다. 도쿄 아키하바라에서나 볼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일본만화 캐릭터인 '피규어'와 잡화들이 시장을 가득 채웠다. 가깝게는 뉴햄프셔나 뉴저지, 심지어 멀게는 플로리다와 워싱턴주에서 찾아온 딜러와 아티스트들도 있었다.

아트 판매 코너에서 만난 한국인 김산씨는 그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이벤트에 참가했다. 일본 만화의 캐릭터들을 그린 포스터를 판매하고 있던 김 씨는 토론토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 사무라이 캄프루 (2004년 방영)을 제일 좋아하는 그는 일본 만화가 자신의 예술 활동에 많은 영감을 주고, 이런 이벤트의 참가가 예술활동에 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시애틀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미시 페나씨 역시 일본 만화를 기반으로 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였다. 그는 산드로 보티첼로의 '베누스의 탄생(The Birth of Venus)'에 일본 애니메이션의 남성 캐릭터를 그려 넣거나,



애니메 보스톤의 행사마다 많은 관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본을 대표하는 목판화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카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神奈川沖浪裏)'에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를 그려넣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에 어울리는 캐릭터들을 그려 넣어 판매하고 있었다.

이처럼 재패니메이션의 힘은 2차 창작에 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심하다고 알려진 일본이지만, '동인(同人)'이라고 불리는 아마추어 2차 창작 문화는 저작권 사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하며, 표현에 있어서도 법의 규정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이러한 2차창작 시장의 붐은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로 머물게 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제작을 즐기는 시장으로 확대시켰다.

동인문화는 신인 작가들의 프로 등용문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반대로 표현의 제약이나 규제를 피해 동인으로 옮겨 직업적으로 하는 프로 동인작가들도 생겨났다. 내공이 깊은 동인작가들의 경우 원작을 뛰어넘는 그림체와 스토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취미 활동에서 머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2차 창작 문화는 재패

니메이션의 인기를 더욱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충성도가 높은 팬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류의 경우에도 커버 댄스나 좋아하는 가수들을 일러스트로 그리는 팬아트, 팬픽(소설)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K-Pop의 진입 통로

일부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문화를 동시에 소비하고 있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이전 시절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접한 뒤 일본 문화에 심취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 중에서 일부 팬들은 성장 하면서 K-Pop을 접한 뒤 일본 애니메이션과 케이팝 양쪽의 팬이 되거나 아예 케이팝 팬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 만화를 뜻하는 신조어 '재패니메이션'을 접하는 계기는 성장기에 TV방송이나 부모님이 사주신 비디오로 자연스럽게 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면에 케이팝은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 연관 검색으로 우연히 발견하여 팬이 되거나 친구의 추천으로 받을 들여놓는 자발적인 팬의 경우가 많다.

▶▶9면으로 계속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8면에 이어서

K-Pop 상품 판매 부스에서 만난 케이티씨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이었지만, 지금은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몇 장의 한류 스타 포스터와 2장의 CD를 산 그는 2010년에 유튜브에서 '샤이니'의 '루시퍼' 뮤직비디오를 접하면서 한류 팬으로 전향했다고 말했다. 뮤직비디오의 화려한 영상미와 칼같이 짜인 군무, 만화에서 나온 것 같은 스타들의 생김새와 패션이 그를 한류팬으로 만든 이유라고 대답했다.

아트 판매 코너에서 한류 스타들의 초상화를 판매하고 있던 크리스탈 코엔씨 역시 세일러문이나 포켓몬스터를 보고 자란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아시아 문화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고 밝히며,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케이팝을 동시에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류 팬으로써 미국에서 한류가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5년 전까지 미국에서의 케이팝은 정말 작은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재패니메이션에서 배워야 할 한류 비즈니스 미국에서의 재패니메이션의 발전의 역사는

문화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 하려는 한국과 한류문화에 시사 하는 방향이 크다. 1997년 중국에서 시작한 한류문화는 동남아와 일본을 거쳐 어느덧 세계를 상대하고 있다. 한류의 시작은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음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빠른 비트의 댄스음악에 매료된 중국 젊은이들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하나의 붐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대기업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만들어지는 가수나 앨범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기획력도 좋지만, 한류가 보다 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드라마 '겨울연가'의 인기로 한류열풍이 일었던 일본에서는 2010년 초반부터 한류의 거품이 끼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일본과의 역사문제로 인한 반한감정이나 한류 스타의 인기만을 노리고 작품성이 떨어지는 콘텐츠를 판매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문화를 재생산하는 문화의 원동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다. 동남



애니메 보스턴 행사에서는 코스튬을 한 관객들과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아시아의 젊은 한류팬들이 적극적으로 팬덤을 형성하고 팬덤 안에서 가치를 생산했던 것과 달리 일본 소비층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 구매력은 높았으나 재생산자로서의 힘은 떨어졌다. 다시 말해 한류스타들의 콘서트는 많아 티켓 판매는 많아도 한류팬들이 모여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이벤트가 적었다는 뜻이다.

지금의 한류 비즈니스는 앞서 말했듯이 해외시장을 노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스 에이나 에프엑스처럼 해외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외국인 멤버를 영입하거나 슈퍼주니어나 엑소처럼 하나의 그룹을 외국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닛으로 나눈 경우, 또는 보아나 소녀시대처럼 외국인 작곡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를 단순히 구매에서만 그치게 하는 패턴으로는 오래갈 수 없다.

한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국 문화를 알리려는 지역 한인들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보스턴 미술관에서의 한국 관련 행사나 지역 한인 또는 각 대학 한인 학생회 안에서의 국지적 문화행사는 존재해 왔지만 보스턴 시내에서 한국을 알리는 정기적인 행사는 아직까지

없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매년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자국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식의 신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보스턴의 일본인 사회는 한인 인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에서의 일본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보스턴 지역의 일본 유학생들과 기업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매년 5월 보스턴 코먼스에서 일본 축제를 개최해 온 이 축제는 작년에는 3만명이 입장할 정도로 큰 이벤트로 발전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매년 11월 보스턴 커리어라는 일본 기업 취업 박람회를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다.

한인들도 확장된 한국에 대한 관심에 대한 욕구를 오랫동안 관심을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한인들이 지역 사회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스턴 한인회가 10월 한인문화 축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한류 가수들의 초상화를 팔던 '크리스탈 코엔' 씨는 미국에서의 케이팝은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손목, 무릎 통증
-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불면증
- 비염,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습진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심혈관 질환 예방, 당뇨, 고혈압
- 갱년기 증후군, 호르몬 불균형
- 임신, 분만, 산후 회복
- 기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치료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aenglim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비시추세초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버스와 전철 운행 상황 정보 한 눈에

MBTA 퍼포먼스 대시보드 웹사이트 오픈  
직관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MBTA에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웹사이트는 MBTA의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퍼포먼스 대시보드(Performance Dashboard)라고도 불리는 MBTA의 새 웹사이트는 버스나 전철이 정시에 오는지, MBTA가 예산 내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지, 승객들이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등을 보여준다.

이런 정보들은 이미 과거의 웹사이트나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새로 오픈한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쉬운 용어로,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교통부와 협력하여 이번 웹사이트를 개발한 혁신부의 레이첼 베인 차관보는 "과거에 MBTA는 운행 실적에 대한 많은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어렵게 담고 있어 중요 포인트를 놓치기 쉬웠다"며 "황설수 설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끝났다. 대시보드는 MBTA가 어떻게 운영되

고 있는지 승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MBTA의 퍼포먼스 대시보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첫 화면은 깨끗하고 단순하다. 대시보드의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퍼포먼스 대시보드는 www.mbtabackontrack.com 로 접속하거나 MBTA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타고 접속할 수 있다. 첫 화면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MBTA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MBTA에서 새로 오픈한 퍼포먼스 대시보드의 메인 화면



벌링턴 소재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 벌링턴 소재 교회서 성모 마리아상 훼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벌링턴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상의 머리와 손이 잘리고, 다른 2개의 석상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벌링턴 경찰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찾기 위해 일반 대중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벌링턴 경찰서는 세인트 마가렛 패리쉬(St. Margaret Parish)에서 기물이 파손되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마이클 켈트 벌링턴 경찰서장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종교 기관을 상대로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우리는 철저

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이 일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벌링턴 경찰은 교회에서 발생한 석상 훼손 사건이 밤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벌링턴 111 윈 스트리트(Winn St.)에 위치한 교회에서 발생한 석상 훼손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면 전화(781-272-1212)로 벌링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 JEI 재능교육

## SUMMER 2016

**PREP COURSE**

이번 여름,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Critical Thinking**   **JEI English**

2달간의 긴 여름방학, 재능교육에서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음 학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Java의 신!**  
Sang Shin 강사와 함께하는  
여름 Java 강좌 일정

<b>weekdays, 9am-noon</b> **프로그래밍 실습포함
초급반 Jr. High kids 7/5(화) - 7/15(금)
중급반 AP prep. for High School kids 7/18(월) - 7/30(금)
등록 마감일: 6월 26일(일)

**FREE Enrollment\***  
\*Free registration dates vary by location

**JEI of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5.0075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JEI**  
Learning Centers®  
jeilearning.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BOSTON**

## 주택.펀도.사업체.건물.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realty.com  
Son22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 보스톤 시내 주행속도 이젠 20마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내 상당수의 거리에서 자동차 주행속도를 현행 30마일에서 20마일로 제한하도록 한 법안이 보스톤 시의회에 상정됐다.

보스톤 시의회 프랭크 베이커 시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최대 청원은 바로 속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상정했고 이 법안은 주민청문회에 부쳐졌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시의회를 다수로 통과해야 하며 마틴 월시 시장의 서명을 받은 후 매사추세츠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베이커 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속도 제한은 주의회에서 제정한다고 밝혔다. 특별하게 속도가 표시되어 있지않는 한 '주거지역'의 속도제한은 시간당 30마일이다.

주지사는 "차량이 양방향에서 오가며 길가로 차량을 주차하고 자전거와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마일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틴 월시 시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월시 시장은 "속도를 낮추는 것은 hsb@bostonkorea.com



정체되고 있는 사우스 보스톤의 한 도로

보스톤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하는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시의회가 베이커 시의원의 법안을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 보스톤시의회 왜 공무원 노스캐롤라이나 여행 금지했나?

## 보스톤 시의회 노스캐롤라이나 여행금지법 통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30일 만장일치로 노스캐롤라이나에 공무원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최근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들의 공중 화장실을 바뀐 성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보스톤 시의원 자시 제이킴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마틴 월시 시장도

서명을 했으며 즉시 발효됐다.

제이킴 의원은 "보스톤시는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차별을 중시하는 시이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법안 통과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함을 느꼈다. 보스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미국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통과된 법은 hsb@bostonkorea.com

지방자치단체가 게이와 트랜스젠더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반 차별법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의회는 지난주 이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팻 맥크로리 주지사는 즉시 서명했다.

보스톤의 여행금지법은 공무원들의 여행을 금지했지만, 계약상의 의무 이행 또는 시 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행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 하버드 스퀘어 오봉팽 문닫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32년간 하버드 스퀘어의 상징물 중 하나였으며 학생 및 주민 그리고 방문객들의 주요 만남의 장소였던 오봉팽이 3월 31일 영구적으로 문을 닫는다.

오봉팽은 31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음식을 서빙하며 이후 하버드 스퀘어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하버드대학은 지난해 여름 오봉팽이 위치하고 있는 소위 포브스 플라자와 스미스 캠퍼스 센터를 대폭 개편해 현재의 광장쪽으

로 건물이 더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최초 11피트가량 진출하려던 유리벽을 4피트만 나오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케임브리지 주민들은 당초 계획이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광장의 분위기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스미스 캠퍼스 센터의 개편으로 인해 오봉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hsb@bostonkorea.com

# 구글, 보스톤다이나믹스 구매자 물색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월덤 소재 로봇제조회사 보스톤다이나믹스는 2월 23일 유튜브에 알타스란 로봇을 공개해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눈발을 헤치고 산길을 걸으면서 균형을 잡고 박스를 들어 선반에 올리며 박스를 움직이면 이를 따라 다시 들어 올리는 등 거의 로봇이 사람과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3월 17일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보스톤다이나믹스를 매매했 계획이라고 보도해 수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보스톤다이나믹스가 향후 몇 년안에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판매하려 한다는 보도였다.

보스톤다이나믹스의 인수회사로는 토요타 연구소 또는 아마존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회사는 구체적으로 블룸버그의 확인 요

청에 답하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2013년 로봇 분야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보스톤다이나믹스를 인수했다. 이 협상은 안드로이드 분야의 전 사장이었던 앤디 루빈이 이끌었다. 그러나 루빈은 2014년 10월 회사를 떠났다. 이와 더불어 리플리컨트 (Replicant)라 불리는 구글의 로봇분야 사업부문에 있어서 리더십 부재의 문제가 떠올랐다.

특히 보스톤다이나믹스의 경영자들이 구글의 캘리포니아 또는 도쿄의 로봇팀들과 협력하기를 꺼려하면서 로봇분야에서 불협화음이 일게된 것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다이나믹스가 소개한 로봇 알타스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급도 상업용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lesley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부동산 미주 전체 3등  
2015년 뉴스타 부동산 미주 전체 2등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 공화 '마지노' 위스콘신 총력전... 트럼프 붕괴 시작?

## 민주당은 샌더스, 4%p로 클린턴 리드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질주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공화당 주류의 '마지노선'으로 거론되는 위스콘신 경선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우세를 선점했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위스콘신 마켓로스쿨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크루즈는 공화당 유권자 40%의 지지를 확보해 30% 지지율을 얻은 트럼프를 10%p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21% 지지율을 기록했다.

크루즈의 지지율은 지난 2월 발표된 마켓로스쿨 여론조사와 비교해 한 달 새 2배나 급상승했다. 당시 크루즈는 겨우 19% 지지율을 얻는데 그쳐

트럼프(30%)에 뒤처졌다. 위스콘신 내 공화당 표가 크루즈로 집결하며 전세를 역전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크루즈는 앞서 에머슨(3월20~22일) 여론조사에서 36% 지지율로 트럼프(35%)를 1%p 격차로 가까스로 따돌렸으며, 프리비컨(3월19~20일) 조사에서도 36% 지지율로 트럼프(31%)를 4%p 격차로 제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스코트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크루즈에 대한 공식 지지선언을 발표하기 전인 24~28일 이뤄진 것으로 크루즈의 지지율은 이후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의 웹진 슬레이트(Slate)는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붕괴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위스콘신 경선 결과는 공화

당 최종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1237명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트럼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슬레이트는 크루즈가 위스콘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가 이를 회복하려면 최소 1~2개 주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트럼프가 7월 전당대회 전까지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지율 유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슬레이트는 내다봤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49% 지지율을 확보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45%)을 4%p 격차로 누르고 선두를 차지했다.

위스콘신 프라이머리는 다음달 5일 치러진다.

yeoulim@news1.kr



도널드 트럼프

## 트럼프 '낙태한 여성도 처벌' 발언에 비난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공화당 경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30일 불법 낙태한 여성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MSNBC방송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낙태를 처벌해야 하느냐고 믿는가"는 진행자 크리스 매튜스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어떤 형태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여성도 처벌해야 하느냐"는 매튜스의 계속된 질문에 "그렇다. 낙태를 금지하고 어떤 형태로든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는 불법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소셜 미디어와 여성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을 낳았다. 가족계획협회는 "도널드 트럼프는 철저히 위험하다. 여성의 삶은 간단히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에밀리 리스트는 "(트럼프는) 여

성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겨운 동물처럼 여긴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진영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 다른 경쟁자들도 비판을 이어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트럼프가 낙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아냥댔으며,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여성이 처벌받아서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트럼프는 수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 연방이나 주정부가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불법 낙태수술을 진행한 의사만이 법적 책임을 진다"며 "이때 여성은 자궁 속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한명의 희생자"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면서 "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앞서 몇번이나 말했듯이 로널드 레이건과 마찬가지로 나는 예외를 인정하는 낙태 반대론자"라고 강조했다.

yeoulim@news1.kr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텍사스)

**태양**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ehoo.com

크레딧 교정,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only \$87로 전문적인 고액서비스 (per Month, FPP) \$499 (1 Year Money Back)

Collection / Late Payment / Charge Off / Bankruptcy / Judgement / Lien / Repossession / Foreclosure / Garnishment

문의는 무료 상담 가능한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1. 크레딧 상담은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since 2004)  
2. 6개월 상담을 위해 문의 www.kcccredit.com 또는 800 rate 44  
3. 크레딧 상담을 위해 모든 크레딧 상담 사항은 온라인으로 진행  
4. 크레딧 교정 상담을 위해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가 제공  
5. 크레딧을 www.kcccredit.com 통해 상담의 진행 상황을 직접 수시로 확인 가능  
6. Late payment, Repossession, Judgement, Bankruptcy, Collection, Charge off, Court Sale 과 모든 bad credit history 가 해결을 위해 문의를 보내 드립니다

문의는 신속한 상담과 1년간 환불 보장

1. 크레딧 교정 비용: \$87 / Month, \$499 / 1 Year  
2. 신속한 결과: 일반적으로 경우 5개월 이내에 모든 채무를 해결합니다. 더 Hard case 시 경우 약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진행합니다. 기부 책임감과 동시에 크레딧 점수 상승 프로그램  
3. 1년간 크레딧 서비스 프로그램이 끝난후에도 기금은행 시스템에서 1년간 크레딧 특별관리  
4. 2년후에는 크레딧 점수가 상향조정될 때 최소한 1년만에 다시 원래 점수로

비주 고객도 상담 가능합니다. 한국어 상담 내용도  
0980704 (Ocell Revolution Specialist) T 617.921.5127

크레딧 교정 교정 업체가 www.kcccredit.com 34 www.kcccredit.com www.kcccredit.com  
North Lee www.kcccredit.com www.kcccredit.com www.kcccredit.com  
Email: kcccredit@kcccredit.com | 921 Harvard Square Suite 2 Albany, MA 02134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미 투자자 25% "힐러리 당선이 증시호재... 불확실성 낮다"

### "트럼프 · 샌더스, 경제 정책 근간 흔들 수 있어 증시에 위협"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미국 대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미국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CNN머니에 따르면 TD아메리트레이드가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증시에 가장 좋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20%의 지지를 받았고, 19%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샌디에고주립대학의 스타트 칼만 교수는 "클린턴은 다른 후보들보다 많이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역사적으로도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의 주가 흐름이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45년 이후 민주당 집권기의 S&P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9.7%에 달해, 6.7%에 그친 공화당을 웃돌았다.

트럼프 후보는 남성 투자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 가운데 거의 25%는 트럼프가 다른 후보들보다 증시를 잘 부양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그렇게 대답한 여성투자자 비중은 15%에 불과했

다.

UCLA대학의 데이빗 술만 교수는 트럼프나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됐을 때 증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두 후보가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한 이유에 대해 "경제 정책의 근간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와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샌더스는 새 세계 도입과 대형 은행 해체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국제재무분석사인 앤디 테이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나 클린턴 모두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yung@news1.kr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 FBI, 애플 도움 없이 아이폰 잠금해제 성공...소송취하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애플의 도움 없이 샌버나디노 총기테러범이 사용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최근 제 3자의 도움을 토대로 아이폰의 어떤 정보도 손상하지 않고 암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이번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도 미국 정부가 "파루크(샌버나디노 테러범)의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에 성공적으로 접근했으며 더 이상 애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며 소송 취하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연방검찰은 한 외부인사가 FBI에 찾아와 아이폰 암호를

해제할 방법을 찾았다며 22일로 예정된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스라엘 현지언론에 따르면 해당 외부인사는 일본계 이스라엘 IT 기업으로 알려졌다.

FBI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테러용의자 사이드 리즈완 파루크(28)가 사용하던 아이폰 5C에 저장된 교신내용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먹었다.

이에 FBI는 애플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돕도록 캘리포니아 지방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애플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른 거대 IT기업 연합의 지지를 바탕으로 격렬히 저항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yeoulim@news1.kr

# 물속에서 숨 쉴 수 있게 하는 트라이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스카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속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하는 호흡기, 트라이톤(Triton)이 발명됐다. 산소탱크도, 스노클링의 플라스틱 호흡관도 필요 없다. 수중 산소만을 필터해주는 장치가 장착되어있는 제품을 입에 물고 자유롭게 헤엄치며 산소를 호흡하면 된다. 내장된 배터리로 45분 동안 작동할 수 있고 최대 15 피트(약 4.5 미터)까지 잠수가 가능하다. 현재 인디고고

(Indiegogo)에서 모금 중이며, 마감 기간을 약 20일 앞두고 목표액보다 1,731% 많은 금액을 모금하였다. 인디고고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299로(약 34만원) 올해 12월 중 제품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시중에서는 \$399로(약 45만원) 판매될 것이라 밝혔다. 트라이톤 창업자는 한국 출신 디자이너 연재번 씨로, 스쿠버 다이버, 수상 구조원 등 물속 활동을 많이 하는 이들이 타겟이라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미 자산시장 휩쓰는 '차이나머니'... 8가지 폭식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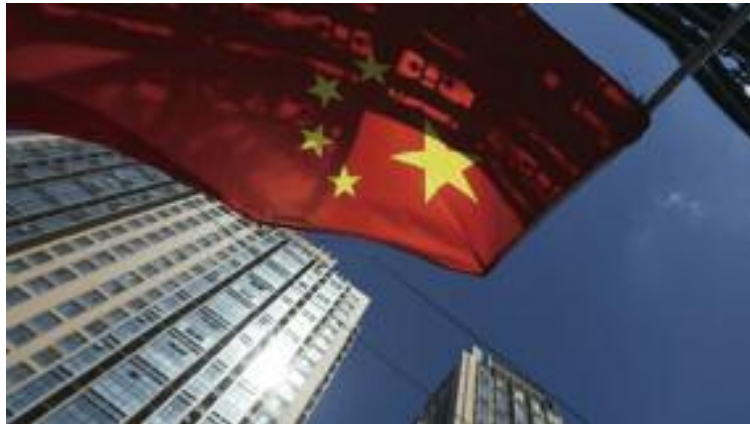
(서울=뉴스1) 온다에 기자 = 중국 기업들이 미국 자산 사들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매입한 미국 자산만 해도 405달러에 이른다. 지난 한해 매입한 총 자산의 2배 규모에 벌써 도달했다.

- 1. 고급 호텔**  
중국 안방보험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스톤으로부터 '스트래티직 호텔스 앤 리조트'(Strategic Hotels & Resorts)를 65억달러에 인수했다. 스트래티직은 고급 호텔 운영 업체다. 오스틴과 실리콘 밸리의 포시즌스 호텔, 마이애미와 시카고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 2. 초고급 호텔**  
중국 안방보험과 메리어트 호텔은 베딩액을 올려가며 스타우드 인수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스타우드는 뉴욕의 세인트 레지스를 포함해 40억달러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호텔그룹이다. 최근 안방보험은 스타우드를 인수하기 위해 140억달러를 제시했다.
- 3. 냉장고, 식기세척기, 커피머신**  
제너럴일렉트릭(GE)은 지난 1월 중국의 전자제품 업체인 하이얼그룹에 가전제품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매각액은 54억달러다. 앞서 스웨덴 전자업체 일렉트로룩스가 34억달러에 매입하기로 합의했었지

- 4. 크레인**  
중국의 중장비업체 중렌중공업은 중장비업체 테렉스 인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테렉스가 핀란드의 한 경쟁업체의 인수제안을 받아들이자 중렌중공업은 지난 1월 인수금액을 더 높였다. 지난주 인수액은 주당 31달러로 높아졌다.
- 5. 영화 '다크나이트'의 제작사**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이 지난 1월 할리우드 미디어 기업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를 35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레전더리는 영화 '고질라'와 '다크나이트' 3부작을 제작하고 '주라기 월드' 공동 제작에 참여했다.
- 6.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인그램마이크로는 하이난항공그룹에 지난 2월 60억달러에 인수됐다. 인그램마이크로는 컴퓨터와 소프트

- 7. 게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게임 '앵그리 버드'를 중국에 도입한 게임업체 쿤룬은 그라인더의 지분 60%를 현금 9300만달러에 사들였다. 그라인더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이 데이팅 앱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동성애자들을 찾아준다.
- 8. 증권 거래소**  
충칭카이신 엔터프라이즈 그룹이 지난 2월 시카고 증권거래소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시카고 증권거래소는 134년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미국 주식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아직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수에 성공한다면 중국이 증권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hahaha8288@news1.kr



## "핀테크"...10년간 미·유럽 은행원 170만명 줄어든다

씨티 보고서 "은행 대출·지급시장 급속도 잠식"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은행원은 '미래에 사라질 직업' 목록에 꾸준히 오르는 이름 중 하나다. ATM, 전산거래 등의 도입으로 은행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순간은 그동안 심심찮게 있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씨티그룹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이 대출과 같은 수익성 있는 분야에서 성장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은행은 향후 10년간 일자리 170만개를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감원 규모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미 현재의 임직원 수는 절정이던 때에 비해 73만명 줄어든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직원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에서 투자은행들이 이미 많은 직원을 해고했지만 개인금융 부분에서는 감축이 크지 않았다. 유럽 각 은행 지점의 해고 움직임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나리오상 은행은 두 가지 이

유에서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은행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더 적은 지점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핀테크이다. 은행 사업 가운데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부문으로 핀테크가 끼어 들면서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출과 결제업무는 핀테크에서 수익성이 좋은 분야다. 특히 대출 부분은 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지다. 지난 6년 동안 핀테크로 조성된 개인 자금 190억달러의 46%가 대출로 운용됐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결제이다. 핀테크 투자금의 23%를 차지했다.

씨티그룹의 보고서는 "지급카드는 주로 전자상거래 등 비교적 새로운 생태계에 내재된 기업들이 핀테크를 창조해 왔다"며 "여러 나라의 은행들에게 핀테크는 기존의 수익을 잃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hemingway@news1.kr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Somerville 5 Family \$ 999,900**  
2941 sq ft, 3072 sq ft, 1191 sq ft  
501 콘도, Garden, Dining, Hard oak floor,  
porcelain granite,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law. 2nd floor, 4th floor.



**Brookline 2 Family \$ 1,100,000**  
1445 sq ft, 2300 sq ft, 4300 sq ft  
멋진 학교, 잘 관리된 공원, Green Line D 콘도,  
2차, 3차의 위치, 좋은 건물, 5 year Roof,  
입대전도 heating system, 2차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지붕이 있음, 2차, 3차, 4차, 5차,  
대지 면적 8595 sq ft, 년 Fee \$684



**Newton \$1,200,000**  
2가구,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입대전도, 1191 sq ft, 1191 sq ft,  
연도하기 좋은 위치(T 콘도, 보스톤빌리지)



**Newton \$1,999,000**  
3019년 새집, 최고 학교, 2차, 3차, 4차, 5차,  
대지 면적 10990 sq ft, 1191 sq ft, 1191 sq ft,  
Entry B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000**  
2019년 새집,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보기도 좋은 위치, 2차, 3차, 4차, 5차,  
대지 면적 70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385,000**  
2014년 새 집, 2차, 3차, 4차, 5차,  
연도전도, 2차, 3차, 4차, 5차, 6차,  
주거 면적 1300 sq ft, 3020 sq ft, 3020 sq ft,  
95 고속도로 콘도, Garage Parking



**Burlington \$589,000**  
2019년 새 집, 2차, 3차, 4차, 5차,  
주거 면적 2000 sq ft, 대지 면적 1075 sq ft,  
Hardwood 콘도.



**Boston Fenway \$364,000**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290,000**  
2019년 새 집, 최고의 학교, 2차, 3차, 4차, 5차,  
주거 면적 4000 sq ft, 대지 면적 17540 sq ft,  
아후 바닥, 최고의 학교, 완벽한 건물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 박 지지율, 7개월만에 최저... '공천 갈등 진원지' TK 급락

긍정 평가 40.1%, 부정 평가 52.2%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 친박(親朴근혜)계의 유승민 의원 공천 고사 작전 논란과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 투쟁'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계파 간 공천 갈등이 대구를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구·경북(TK) 민심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크게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8일 발표한 3월 넷째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161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해 전주 대비 1.8%포인트 내려간 40.1%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8월 둘째주 39.9% 이래 최저치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3%포인트 하락한 52.2%였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격차는 10.6%포인트에서 1.5%포인트 벌어진 12.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1%포인트 증가한 7.7%였다.

특히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여권 핵심 지역이자 공천 파문의 주 무대였던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주 69.9%에서 55.6%로 14.3%포인트로 급락했다.

이 지역에서 일간상 부정 평가가 지난 17일 이후 조사일 기준 6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25일엔 부정 평가(47.3%)와 긍정 평가(50.9%)가 오차 범위 내로 근접하기도 했다.

일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지난 21일 전주 주간 집계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39.5%(부정 평가 52.6%)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경기 판교에서 창조경제 행보에 나섰던 지난 22일에는 40.6%(부정 평가 51.7%)로 상승했고 북한의 '침와대 불바다 위협' 보도가 있었던 23일에도 42.5%(부정 평가 50.7%)로 추가 상승했다.

유 의원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 보도가 있었고 공천 의결에 관한 김 대표의 '옥새 투쟁'으로 친박과 비박(非박근혜) 간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24일엔 39.5%(부정 평가 51.8%)로 떨어졌다. 지난 25일에도 38.9%(부

정 평가 53.7%)까지 추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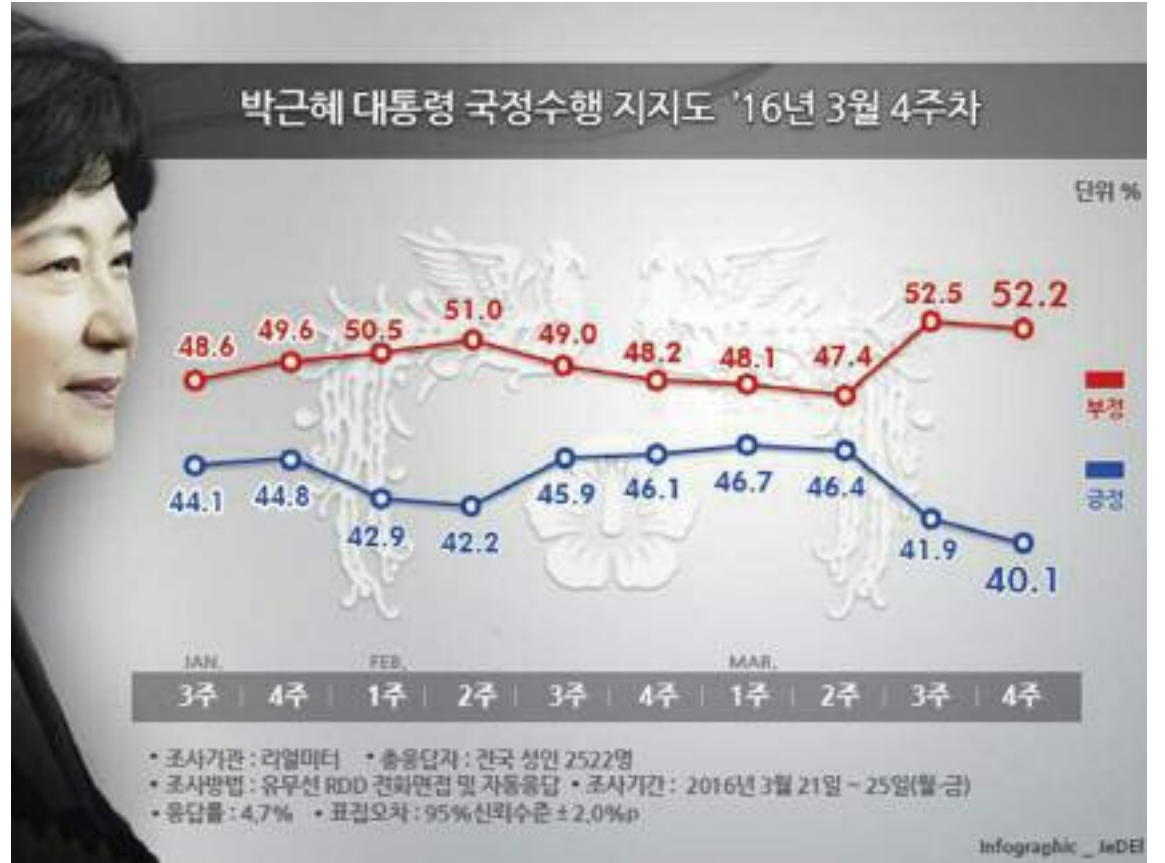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지난 21~25일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상대로 유(40%)·무선전화(60%)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CATI) 및 자

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통계 보정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

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girin@news1.kr



2016년 3월 넷째주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 Hammond Residential

###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칼린)




617-981-1542


Umi Cho (우미 초)



508-641-8924



LEXINGTON ... \$ 2,985,000



WAYLAND ... \$ 1,825,000

##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BURLINGTON WEEKLY SALE APR. 1ST - APR. 7TH, 2016**

## PIZZA GETS A KIMCHI MAKEOVER.

Give pizza pizzazz to prove Kimchi does go great with everything. Let's try it on PIZZA!

H마트가 소개하는 기막히게 맛있는 퓨전요리~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김치와 납뽀노스 누구나 좋아하는 피자, 만남, 김치피자를 맛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p><b>FRI/SAT/SUN ONLY 1/2/3 ONLY</b></p> <p>아틀포 망고 박스 Ataulfo Mango</p> <p><b>\$13.99</b> box</p>	<p>Nagaimo 마 고구마 Medium Size</p> <p><b>\$3.99</b> lb.</p>	<p>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p> <p><b>\$1.49</b> lb.</p>
<p>JINGA Tofu 진가네 두부 Soft/Firm - 14oz.</p> <p><b>\$0.99</b></p>	<p>이스라엘 클레멘타인 Israeli Clementine</p> <p><b>\$1.79</b> lb.</p>	<p>캐나다산 유기농 새송이 버섯 Canadian Organic King Oyster Mushroom</p> <p><b>\$3.99</b> 8oz./pkg.</p>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Sliced Pork Single Rib Belly for BBQ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p> <p><b>\$5.99</b> lb.</p>	<p>Pork Baby Back Rib 돼지 갈비</p> <p><b>\$3.49</b> lb.</p>
<p>Beef Short Rib Chunk for Stew 찜갈비</p> <p><b>\$11.99</b> lb.</p>	<p>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p> <p><b>\$1.49</b> lb.</p>
<p>Sliced Beef Chuck Flap Tail for BBQ 큐이용 살치살</p> <p><b>\$14.99</b> lb.</p>	<p>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p> <p><b>\$6.99</b> lb.</p>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Abalone 냉동 전복</p> <p><b>\$19.99</b> lb.</p>	<p>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p> <p><b>\$6.99</b> 26-30's lb.</p>
<p>Head-on White Shrimp 머리새우</p> <p><b>\$5.99</b> lb.</p>	<p>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 고등어</p> <p><b>\$1.99</b> lb.</p>
<p>UOTARO Cooked Whole Short Neck Clam 냉동 통바지락</p> <p><b>\$2.99</b> 2 lbs./pkg.</p>	<p>Porgy 흑돔미</p> <p><b>\$1.99</b> lb.</p>

<p>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멜로우) 15 lbs.</p> <p><b>\$9.99</b></p>	<p>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s.</p> <p><b>\$9.99</b></p>	<p>SHIRAKIKU 100% Pure Sesame Oil 시라기쿠 참기름 56fl.oz.</p> <p><b>\$9.99</b></p>	<p>네추럴 가든 생강차 NATURAL GARDEN 100% Natural Ginger Tea Original - 8.9oz./with Honey - 5.9oz.</p> <p><b>\$1.99</b></p>
<p>SAM SU GAB SAN Brown Rice 삼수갑산 현미 15 lbs.</p> <p><b>\$9.99</b></p>	<p>케이타운 남원 전통 주어탕 K TOWN Cooked Seasoned Loach Soup 15.8oz.</p> <p><b>\$5.99</b></p>	<p>한상 질리새우 &amp; 소스 HANSANG Fried Shrimp with Chilli Sauce 14oz.</p> <p><b>\$5.99</b></p>	<p>AJINO MOTO Hondashi Bonito Soup Stock 아지노모토 혼다시 1.32 lbs.</p> <p><b>\$9.99</b></p>
<p>BEKSUL Plum Syrup 관강한 매실청을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백설 매실청 36.16oz.</p> <p><b>\$9.99</b></p>	<p>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All Varieties/8.8oz.</p> <p><b>2\$5</b></p>	<p>HAITAI Choco Flavor Homerun Ball Snack 해태 초코 홈런볼 5.15oz.</p> <p><b>2\$5</b></p>	<p>광동 비타500 KWANGDONG Vita 500 Vitamin Drink 3.3fl.oz. x 10btl./box</p> <p><b>\$4.99</b></p>
<p>해오름 알로에 베라크 HAIORUEM Aloe Vera Drink Pomegranate/Mango/Kiwi/500mL</p> <p><b>2\$1</b></p>	<p>스캇 화장지 SCOTT Bathroom Tissue 20rolls/pkg.</p> <p><b>\$13.99</b></p>	<p>헬로홈 전기그릴 HELLO HOME Elec. Grill KYS-863A/ea.</p> <p><b>\$39.99</b></p>	<p>조지루시 전골냄비 ZOJIRUSHI Gourmet D-Expert Elec. Skillet EP-RAC50XW/ea.</p> <p><b>\$129.99</b></p>

**R town DUKBOKI JUST GOT TASTIER WITH BONUS NOODLE PACK!**

(RAMYUN NOODLES OR CHEWY NOODLES)  
라면/쫄면 사리가 추가된 케이타운 떡볶이를 더욱 푸짐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쫄면사리 추가  
라면사리 추가

# 꺾어 부스럼?...여 '대통령 사진 반납 논란' 잠재우기

선대위 "더이상 이 문제가 논란돼선 안 돼"

(서울=뉴스1) 유기림, 양새롬,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등 탈당 현역 의원 4명에게 사무실에 걸린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반납'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가 이를 잠재우고 있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당 대통령 존영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 화합과 통합 정신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대구시당에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면 징계조치

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사진 반납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에 전파된다. 선거에 악영향이 없도록 특히 계파 갈등으로 비치는 언행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사진 붙여놓은 걸 떼라 붙여라 하는 대구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하기로 당 지도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중섭 새누리당 후보(대구 동

구갑)는 이날 tbs 라디오 '열리아침 김만홍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탈당할 때까지 대통령을 정말 괴롭히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대단히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그 당사자들은 평소에도 대통령과 진짜 각을 세우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당을 떠났다"며 "탈당 뒤 다시 대통령 존영을 보물처럼 대하는 이유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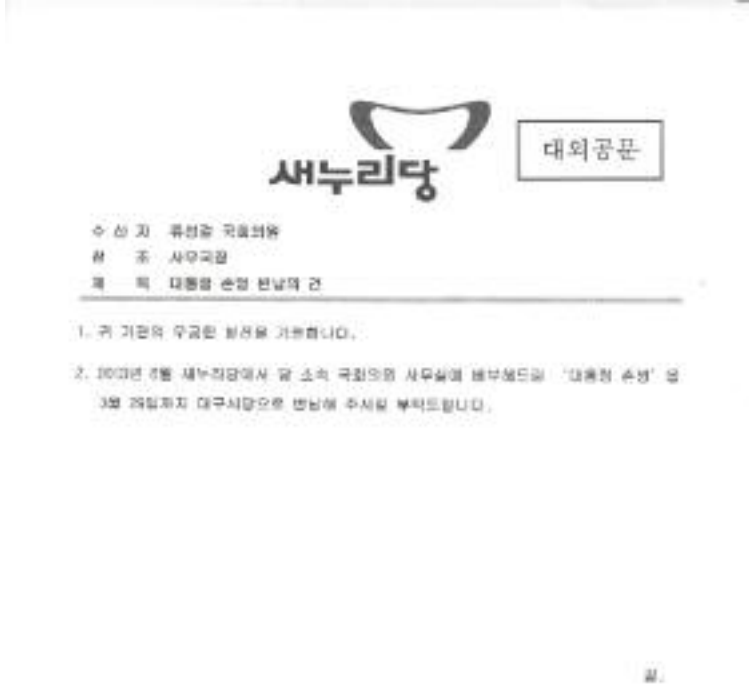
그러면서 "대통령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에서 주었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탈당한 경우는 그러한 사진들은 전부 반납하는 게 맞다"며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무소속 출마한 권은희 후보(대구 북갑)가 당에서 준 사진을 반납하고 따로 구입해서 걸어놓겠다는 얘기를 한 데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그것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28일)에도 "드릴 말씀 없다"고만 언급했다.

flyhighrom@news1.kr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28일 오후 대구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무소속 유승민 후보에게 대통령 사진을 반납하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 대구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중섭(동구갑)후보가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 진박' 정중섭 "박 대통령, 십자가 진 예수처럼 어려운일 해"

대구선대위 발족식 발언 놓고 '과공' 논란...장관 시절엔 '총선 필승' 건배사도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이른바 '진박(眞朴·진실한 진박)'으로 분류되는 정중섭 새누리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며 칭송해 '과공(過恭)'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동구갑에 출마한 정 후보는 전날(2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우리가 뽑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난 그 많은 일을, 피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잡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크게 함성을 외치자. 박근혜"라고도 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정 후보는 '옥새과동' 등 계파 갈등 끝에 공천 막차를 타며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행자부 장관이던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다.

정 후보는 당시 사건을 상기하며 "여러분이 저를 보면 '총선 필승'이 생갈날 것"이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김무성 대표는 "지금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에 전파된다. 선거에 악영향이 없도록 특히 계파 갈등으로 비쳐지는 언행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song65@news1.kr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새벽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첫 유세 일정으로 서울 동대문시장을 찾아 이상욱(중구성동을) 후보와 함께 총선 포부를 밝히고 있다

## 김무성, 첫 일정으로 동대문상가...

공식선거운동 첫날 이상욱 후보 지원유세...서울 지역 '올인'

(서울=뉴스1) 박상휘, 서송희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새벽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서 "북핵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의 상징인 붉은색 점퍼를 입고 이날 오전 0시 서울 동대문 도매쇼핑몰 누준을 방문한 김 대표는 쇼핑물 곳곳을 누비며 "늦은 밤 시간에도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생업 전선에서 고생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도매상을 찾은 손님과 상인들을 상대로 연신 악수를 건네며 이 지역에 출마한 자당의 이상욱 후보(서울 중구·성동구을)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김 대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핵 리스크와 같은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이번 선거에

서 과반수 의석을 반드시 달성해서 국민들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구해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특히 서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도매쇼핑몰 누준 1층 매장을 20여분간 둘러보며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상가를 찾은 중국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자 포즈를 취하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한밤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우리 국민들을 만나뵈러 왔다"며 "이런 분들도 희망을 갖는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지 후보 지원유세로 공식선거운동 첫 일정을 소화한 김 대표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전 8시, 선대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서울투어'에 돌입한다.

song65@news1.kr

보스톤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 2016년도 과기협 수학 경시대회 제 25회 뉴잉글랜드 수학 경시대회



2016년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주최 전미 수학 경시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좋은 실력발휘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가대상	뉴잉글랜드지역 4학년 ~ 11학년 학생
대회일시	2016년 4월 9일(토) 1:00PM - 5:00PM (1:00PM check-in 마감, 5:00PM 시상)
대회장소	MIT Building 35 Room 225
참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가비 : \$25 (사전등록및납부) \$30 (현장등록및납부)</li> <li>사전등록및행사안내: <a href="http://www.kseane.org">http://www.kseane.org</a></li> <li>사전등록및납부기한: 3월31일(토요일)</li> <li>기타: (1)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학부모님들을 위한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혜옥 교수(BU) : Korean-American's 멘탈 붕괴 이주성 교수(KAIST) : 미래사회를 만드는 인재 (2) 사전등록자도 현장에서 check-in 하셔야 합니다.</li> </ul>
행사문의	Email: <a href="mailto:contact@kseane.org">contact@kseane.org</a> 김기수 (617-529-1238)



- 매년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입니다. (전국규모 2,000명 이상)
- 재미과학기술자협회의 홈페이지(<http://www.ksea.org/nmsc>)에서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및 참가비 납부마감은 3월31일(토요일)입니다.
- 1시30분에 시험장으로 이동하니 1시 이전에 오셔서 check-in을 마치고 일정 및 시험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학생들의 시험을 돕는 자원 봉사로 돕길 원하시는 분은 [www.kseane.org](http://www.kseane.org)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재미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재미 한인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

# 총선 좌우할 40대, '스윙보터'...비중 크고 부동산 많아

30대 이하 줄고, 50대 이상 늘어 '여당 유리' 관측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0대 유권자가 총선의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스윙보터'로 역할할 것이라 관측이 나왔다.

각 세대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으면서 진보·보수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은 무당층·부동층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유권자 수의 잠정치는 4206만2935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40대는 884만3790명(21.03%)으로 각 세대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19세 67만7307명(1.61%) △20대 670만7035명(15.95%) △30대 761만4776명(18.1%) △50대 837만6044명(19.91%) △60대 520만2497명(12.37%) △70대 이상 464만1486명(11.03%) 등

으로 나타났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40대가 제일 까다로운 유권자다. 다른 세대에 비해 부동산이 많다"며 "각 정당 입장에선 40대를 어떻게 투표장으로 끌고 오느냐 등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4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이슈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40대의 투표성향이 총선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40대에 부동산이 많은 이유는 2030세대 처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면서도 50대 이상 처럼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 비중에서 30대 이하는 줄고, 50대 이상은 늘어난 점을 두고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관측도 제기된다.

중앙선관위 조사결과 이번 총선의 50대 이상 유권자는 1822만27명으로,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1575만3358)보다 246만6669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30대 이하 유권자는 1499만9118명으로, 19대 당시(1560만8460명)보다 60만9342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총선과 비교해 30대 이하와 50대 이상 유권자 수 격차도 더 커졌다. 19대 총선에서 50대 이상은 30대 이하보다 14만4898명 많았고, 20대 총선에선 5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322만909명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



30일 서울역에 마련된 투표참여 홍보관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 64% "반드시 투표"...최대변수 투표율 올라갈까

선관위 "20~40대 참여의향 상승, 사전투표도 기대"...전문가들은 "투표율 저조"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30일, 전국이 총선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무승부는 없다는 얘기다.

승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가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집권 여당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통설이지만 '일여다야(一與多野)'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의 경우에 적용기는 어려울 듯 싶다.

더구나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터라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염증이 최고치에 달해 투표 포기코 이어질 우려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총선 투표율과 관련, 전문가들과 투표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망은 엇갈렸다.

정치전문가들은 여야 '공천 잡음'에 따라 텃밭인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율 저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짚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0~40대를 중심으로 투표 참여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20대 총선 유권자 대상 '투표참여 의향 및 사전투표제도 인지도'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70.8%가 '이번 선거에 매우 관심있다'(선거 관심도)라고 답했다. 또한, '반드시 투표할 것'(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3.9%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같은 시기 조사에서 '매우 관심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6%, '반드시 투표할 것'이 56.9% 였던 것에 비하면, 투표 참여 의향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전국적 선거에 앞서 선관위는 이번 투표율 예측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그 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투표율 추세와 일치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조사 결과가 맞다면 20대 총선 투표율은 19대의 54.2%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 관심도 및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 모두 20~40대의 상승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선거 관심도는 △20대 63.3% △30대 70.5% △40대 70.6% △50대 73.5% △60대 이상 74.4%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19대 총선에 비해 15.1%p가 증가하며, 젊은층의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한다는 자체 분석이다.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 역시 20대가 55.4%로 집계되며 19대(36.1%)에 비해 19.3%p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30대 59.6% △40대 63.2% 역시 증가했다. 반면, 50대는 65.4%, 60세 이상은 72.8%로 19대에 비해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수 설현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이 젊은층의 관심을 이끈 것이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의원 총선거로서는 처음 적용되는 이번 사전투표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을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의 이날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참여 시기에 대해 '선거일에 투표'가 79.6%, '사전투표'가 14.0%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전투표가 없을 경우에도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는 응답이 12.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보통 젊은층들의 참여가 활발하기에, 10%가 넘는다면 의미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정치전문가들은 '공천 잡음'과 '여야 텃밭을 중심으로 한 정치 염증 현상'으로 인해 이번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선 투표율은 18대에서 46.1%로 최저를 찍은 뒤, 지난 19대에 54.2%로 반등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선관위의 이날 여론조사는 선관위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krusty@news1.kr

##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13일 열전 돌입...

선거일 앞서 재외·선상·사전 투표 등 진행 4월7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31일 0시를 기해 전국에서 시작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4월12일 밤 12시까지 총 13일간이며, 공식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날부터는 20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전국 8만7000여곳에 일제히 붙는다.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다음달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다음달 3일까지 발송된다.

선거일 전 6일인 다음달 7일부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또 선거일 당일에 앞서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투표 등이 먼저 진행된다.

우선 재외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외투표'는 전날(30일)부터 시작됐으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한국시각 오전 4시)으로 113개국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15만421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배에 승선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투표'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8~9일 양일간은 선거 당

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의 경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인 4월13일 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1인 2표를 행사해 국회의원투표로 지역구 대표를, 정당투표로 비례대표를 뽑게 된다.

만 19세 이상(1997년 4월14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는 총선 선거인수는 4206만2935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등을 거쳐 4월1일 최종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난 뒤 4월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은 6월12일 내에 보전된다.

이밖에 선관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아울러 총선 당일까지 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은 '정치자금공개시스템'(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된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ksj@news1.kr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대표  
컨설팅/마케팅 담당  
**홍은희**

# 자발적 성판매 처벌 합헌결정했지만...이례적 3색 의견

재판관 9인 합헌, 일부위헌, 전부위헌으로 나뉘어  
자발적 성매매여성 처벌 부분에서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성을 사고 판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은 합헌, 위헌이 아닌 세 갈래로 나뉘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여섯명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단했고, 2명은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부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9명의 재판관 중 조용호 재판관이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더욱이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던 청구인 A씨가 성판매여성이라는 점에서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들 간의 자발적 성판매까지도 국가형벌권 발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이뤄졌다.

◇ 합헌의견, 성적 자기결정권 <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심판대상 조항이 합헌이라고 선언한 법정의견은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합헌의견은 "성판매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판매여성의 인권향상은 커녕 오히려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어

렵게 만들어 성매매에 고착시킬 우려도 있다"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을 파는 사람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일지라도,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성매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불법 인신매매를 통해 성판매여성에게 합법적인 성판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부위헌, 성판매 하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문제'

합헌의견과 일부위헌의견은 성매매를 근절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성판매자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일부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을 정하고 있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데에는 다수의 견과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또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성판매자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사익과 공익 사이의 법의 균형성에 대해 법정의견과 판단을 달리했다.

일부위헌의견은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서 "이들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위헌의견은 "여성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시장을 음성화해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일부위헌의견은 "성매매 자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위헌의견,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조용호 재판관은 전부위헌 의견을 내고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성판매자와 성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회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성을 처분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조 재판관은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며 "그 자체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매매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조 재판관은 "동남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마라"는 속담에 성판매여성들의 처지를 빗대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자발적 성매매를 일종의 경제행위로 인정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근절효과에 대해서도 법정의견과 다른 판단을 했다. 그는 "성매매처벌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법이)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대 형법의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특정 내용의 도덕관념을 갖도록 그에 위반되는 성행위를 형사처벌한다면, 그러한 도덕관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성적 욕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며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고 성매매 근절 필요성에 대한 판단자세를 달리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처벌법은 2000년 9월 군산화재사건을 비롯한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으로 성매매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따라 제정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수혜자로 예상됐던 성판매여성들조차 단식투쟁과 집회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인인 A씨도 자발적 성판매여성이다.

jurist@news1.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31일 오후 현재 심판정에 들어서서 자리하고 있다



## 줄어드는 삼성전자 직원...평균연봉은 3년 연속 1억원 이상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삼성전자 직원 평균연봉이 3년 연속 1억원을 넘어섰다.

31일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에게 지급된 평균연봉은 세전기준 1억100만원이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가량 줄었다.

삼성전자 직원수는 총 9만6898명으로 전년대비 2500명가량 줄었다. 매년 직원이 늘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남여직원 연봉차는 3500만원에 달했다. 남성 직원의 연 평균급여는 1억1000만원인 반면, 여직원의 평균 급여는 7500만원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0.3년으로 나타났다.

'별'을 단 임원 감소폭도 컸다. 2014년 삼성전자 임원 수는 1212명이었지만, 지난해엔 1083명으로 129명 줄었다. 전체 임원의 10%에 해당하는 임원이 옷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살벌한 성과주의를 실현하며 임원 승진 규모를 대폭 줄인 바 있다. 삼성전자는 실적부진에 따른 책임을 물어 임원 승진자수를 135명으로 전년대비 18% 줄였다.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부사장 29명, 전무 68명, 상무 197명 등 총 294명이 승진했다. 외환위기가 닥친 2008년에 2009년 임원인사로 247명을 승진시킨 이후 300명 미만이 승진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었다. 등기이사 연봉도 성과에 따라 역전됐다. 2014년 연봉킹에 올랐던 신

종균 IM부문 사장을 제치고 권오현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이 150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았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의 실적 희비가 엇갈린 결과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00조원을 간신히 수성했다. 4년 연속 매출 200조원 기록은 이어갔지만 2013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이후 3년 연속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영업이익은 26조3700억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로 스마트폰 사업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내리막길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위기 조짐이 뚜렷해 비상경영을 펼치고 있다. seeit@news1.kr

## 충북대서도 막걸리 세례 '물의'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부산의 한 대학 동아리에서 오물이 섞인 막걸리를 신입생에게 뿌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충북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페이스북 한 페이지에 '충북대 막걸리 세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으로 20~30여명의 학생들이 막걸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정장을 입은 한 학생이 막걸리로 추정되는 액체를 투척하고 신입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은 잔디밭에 앉은 손과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학생들 옆에는 선배로 보이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있다.

이 글에는 '부모님이 아닐까 걱정된다', '충북대 실망이다'

등의 댓글이 5000여개나 달렸다. 충북대 커뮤니티 페이지에 자신을 '막걸리행사 당사자'라고 소개한 학생은 "씻을 시간도 충분히 주셨고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재밌었는데 왜 미개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욕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겨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충북대 관계자는 "어느 과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신입생들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상황과 관련 사진과 글이 페이스북에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 'LG G5'에 프렌즈 결합해보니..."변신폰 색다르네~"

(서울=뉴스1) 김보람 기자 = 31일 83만6000원의 출고가로 국내 시판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5'의 가장 큰 매력은 하단의 모듈을 다른 모듈로 갈아끼울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G5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공개됐을 당시부터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LG전자는 이같은 호평을 등에 업고 국내 출시전에 늘 하던 예약판매도 생략한 채 '체험존'을 늘려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해 보는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전마케팅을 해왔다.

'체험존'을 찾아 G5와 함께 전시된 '프렌즈'를 일일이 갈아끼워보면서 기존 스마트폰에서 느낄 수 없던 색다른 느낌이 느껴졌다.

이날 G5와 함께 출시된 프렌즈는 모두 6종이다. 카메라로 변신하는 '캠 플러스'(9만9000원)를 비롯 스마트폰을 통해 VR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360 VR'(29만9000원) 그리고 VR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360 캠'(29만9000원)이 나와있다. '톤플러스'(HBS-1100)도 21만9000원에 시판된다. 고품질 오디오 모듈 '하이파이 플러스'(18만9000원)와 프리미엄 이어폰 'H3 by B&O 플레이'(27만9000원)도 개별판매되고 두 상품을 묶은 'B&O 패키지'도 판매된다. 패키지는 30% 할인된 28만9000

원에 판매된다.

◇G5에 '캠 플러스' 끼웠더니 카메라로 변신

G5 하단 왼쪽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면 아래 부분이 '또각'하고 서랍처럼 튀어나온다. 나온 부분을 잡아 빼면 노란 배터리가 꽂힌 아래 부분이 떨어져 나온다. 이 부분은 본체와 완전히 분리된다. 바로 이 빈 공간에 카메라 모듈, 오디오 모듈 등의 프렌즈를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카메라 모듈인 '캠 플러스'를 끼워봤다. 그러자 G5가 디지털 카메라로 변신했다. 캠 플러스의 진가는 한손으로 들었을 때 발휘된다. '손맛'부터 남다르다. 손에 닿는 부분이 가죽 느낌의 패턴으로 부드럽지만 미끄러지지 않는다.

한손으로 카메라를 조작하기도 어렵지 않았다.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만 캠 플러스 오른쪽 상단에 동영상 버튼, 카메라 셔터 버튼, 줌인·아웃 휠 등 조작이 가능했다. 굳이 스마트폰을 터치하지 않고도 캠 플러스를 부착하면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줌인·아웃 휠로 78도(1600만 화소) 일반각과 135도(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모드 전환이 가능했다. 특히 사람의 시야각 120도보다 넓은 135도 광각 카메라는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보

다 2배가량 화면이 넓다. 풍경 사진이나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 유용하다.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인물과 풍경을 한 화면에 담기 위해 뒷걸음질칠 필요가 없다.

캠 플러스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없는 특수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캠 플러스는 1200mAh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유용하다. G5 본체 배터리 2800mAh와 합하면 배터리 용량이 4000mAh로 넉넉해진다. 한번 충전으로 하루이상 넉넉히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하이파이 플러스 끼웠더니 '오디오로 변신'

이번에는 '하이파이 플러스'를 끼워봤다. 스마트폰이 바로 오디오로 변신했다. LG전자가 뱅앤올룹슨(B&O)과 협업해 만든 '하이파이 플러스'에 이어폰을 꽂고 성악가 조수미씨의 '꽃밭에서'를 재생했다. 고음의 청아함과 저음의 묵직함이 어우러져 깊은 소리가 귀에 꽂힌다. 일반 모드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다. 하이파이 플러스는 노트북PC, PC와도 연동되며 전작인 G4와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VR 콘텐츠를 감상하는 '360 VR'은 스마트폰과 유선으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VR 헤드셋보다 훨씬 가

볍다. 118g으로, 달걀 2개 무게다. 보통 VR 헤드셋은 스마트폰을 헤드셋에 끼워 사용하므로 무게가 300g 이상 달한다. 360 VR은 머리에 쓰지 않고 안경처럼 쓰는 것도 특징이다.

◇살짝 번거로운 프렌즈 "교체 때마다 전원꺼야"

아쉬운 점도 눈에 띄었다. 모듈을 갈아끼우며 스마트폰을 변신시키는 재미는 쏠쏠한데, 변신시키는 과정은 좀 번거로웠다. 모듈을 갈아끼울 때마다 전원을 껐다 켜야 했다. 그러다보니 모듈을 교체하고 스마트폰을 구동시키는 시간이 살짝 지루했다. LG전자는 처음 G5를 설계할 당시 모듈을 빼도 1-2분 정도 자체 전원이 공급되도록 했지만, 효율성 문제로 제외시켰다고 한다.

제각각인 모듈을 잃어버리지 않게 챙기는 것도 일이다. 모듈을 바꿔 끼웠을 때 모듈과 본체 접합 지점에 미세한 틈이 생기는 현상은 불안정하게 느껴진다. 빗물이나 이물질이 스며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60 VR의 경우 초점 조절이 불편했다. 360 VR은 기기 안쪽에 있는 렌즈를 돌려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상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수가 없다는 뜻이다. 기자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 360 VR을 몇 번씩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다, 결국 흐린 상태로 영상을 봤다. 삼성전자 VR 헤드셋 '기어VR'의 경우 헤드셋 상단에 초점 조절 휠이 있어 영상을 보며 내 눈에 맞게 초점을 조절할 수 있다.

borami@news1.kr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5'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Seoul or Lexington 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oston.com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과 함께 귀여운 손수건 처리받은 복귀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브먼트




2017년 1월 1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파마 30분 부터  
다지깎 130분 부터/개국된 해피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경희 양구경 김영남 미운실, 롯데호텔 마리 미운실, 송내 부천 박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백영주  
617-921-6979



김광오  
617-792-8615



스티븐 손  
617-290-0623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529,900  
Sharon, MA  
4 Beds, 2.5Bath, 2152 sf.  
아주 편리한 위치, 좋은 학교  
hardwood Floor, Skylight  
이현주 401-935-3397



\$529,000  
Sharon, MA  
3 Beds, 2Baths,  
1층에 master Br, 아름다운 부엌  
넓은 대지  
이현주 401-935-3397



\$650,000  
Lexington, MA  
3 Beds, 1Bath, 1188sf.  
좋은 학교,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OT Kim 617-620-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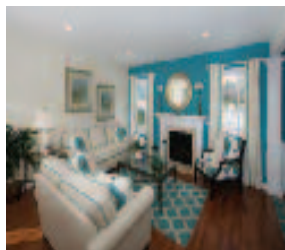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교  
제니스 리 978-806-6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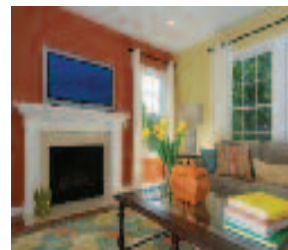
New Construction



\$359,000  
Weymouth, MA  
3Beds, 1Bath, 1380 sf.  
Central A/C, Sky light  
이현주 401-935-3397



콘도/타운하우스 /싱글 하우스 Weymouth, MA  
역까지 도보 5분, South station 까지 3stop, 1-3 Br, \$300,000~  
한인담당; 스티븐 손 617-290-0623 이현주 401-935-3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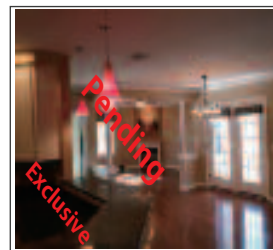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0,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275,000  
North Andover, MA  
2 Beds, 2 Baths, 1060 sf.  
Top/Penthouse corner unit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 Choi 978-866-3248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2,200  
Quincy, MA  
1 Bed, 1.5 baths, 1093sf.,  
Jay Lee 781-654-5281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다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Sara You**  
617-899-356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Nail Salon	Nail Salon	Nail Salon	Restaurant
\$50,000 Dedham, MA 1200sf. 넓은주차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	\$500,000 Woburn, MA 1600sf. 8 mani and 8 pedi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110,000 Cambridge, MA 400sf. Porter sq.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309,000 Arliston, MA 한인타운 최적의 위치 Full size kitchen 스티븐 손 617-290-0623

프렌차이즈/식당	Restaurant
우리 음식과 술 <b>수불</b> WOBURN WATSON ESTD. 한국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한식 주점 수불	\$97,000 Boston, MA 보스톤 유니버시티 근처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한국식당업 프렌차이즈 및 개인 식당창업**  
EB5, E2 이민가능! 뉴욕 맨하탄과 대형 카지노에 오픈 기회!  
SJPark 617-304-7001

Restaurant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499,900 Brockline, MA Restaurant w/Liquor 5000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350,000 Reading, MA 최적의 위치 높은매상 정년세일 스티븐 손 617-290-0623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 Kim 617-792-8615	\$475,000 Quincy, MA 100평 넓어진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 (Julie Lee) 401-935-3397

Investment	상업/아파트 투자	Restaurant	Restaurant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상업, 아파트 임대건물투자 SJPark 617-304-7001	\$850,000 <b>REDUCED</b>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 Bar SJPark 617-304-7001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APT Rental
\$495,000 Boston, MA Alot walk and car traffics SJPark 617-304-7001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가능성!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보스톤 아파트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를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 패트리어츠 포지션별 장단기 필요 분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시즌 수퍼볼 진출에 실패한 패트리어츠는 오프시즌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실한 오펜시브 라인이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의 기량과 남은 계약기간,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포지션 별로 당장 선수 수급이 필요한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 1. 오펜시브 태클

단기: 패트리어츠의 3번째 태클은 2015 시즌에 가장 취약점이었다. 네이트 슐더와 세바스찬 볼머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할 때 마르쿠스 캐논이 선발 태클의 몫을 해줘야 하는데, 캐논은 주전 선수로 나서기에는 기량이 못 미친다. 4번째 태클인 캠프 플레밍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자리를 바꿔가며 경기장에 설 수 있는 스윙 태클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장기: 올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32세가 되는 볼머의 자리를 대신할 선수가 필요하다. 패트리어츠는 올해 드래프트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다.

## 2.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단기: 패트리어츠는 최근 2년 동안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을 모두 디펜시브 라인에 투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포지션에서 선수층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도미니크 이즐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지만 NFL 데뷔 이후 2년 연속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크리스 존스는 과거에 좋은 성과를 냈지만, 부상으로 2015 시즌에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장기: 앨런 브랜치는 2016 시즌이 패트리어츠와의 마지막 시즌이다. 31세의 베테랑인 브랜치가 2016년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하여 패트리어츠에 남을 가능성은 낮다. 말콤 브라운을 도와 디펜시브 라인을 보강할 젊은 선수가 필요하다.

## 3. 러닝백

단기: 지난 시즌 9주차 경기에서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디온 루이스가 얼마나 기량을 회복해서 복귀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루이스가 컨디션 완전히 회복하더라도 패트리어츠는 파워 러닝백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자유 계약 선수가 된 르제렛 블런트를 대체할 선수가 아직 패트리어츠에는 없다.

장기: 루이스가 건강을 유지한다면



지난 시즌 화려하게 등장해 9주만에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디온 루이스의 재활 여부가 러닝백 포지션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다

패스 리시빙이 가능한 전전후 러닝백으로 몇 년 간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러닝백은 단기적인 필요와 같다. 패트리어츠는 게임 플랜에 따라 러시 공격을 소화할 수 있는 파워 러닝백이 필요하다.

## 4. 와이드 리시버

단기: 지금 당장 패트리어츠는 와이

드 리시버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 변수는 몸값에 비해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대니 아멘돌라의 보유 여부다. 2016 시즌에 기본 연봉이 68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는 아멘돌라를 트레이드할 가능성도 있다. 아멘돌라가 빠진다면 다른 베테랑 와이드 리시버를 영입해야 한다.

장기: 패트리어츠의 넘버원 리시버

인 줄리언 에들먼이 영원히 경기장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에들먼은 패트리어츠 팀 내에서는 물론 리그 전체에서도 탑 리시버로 꼽히지만, 풋볼 선수의 전성기는 의외로 빨리 지나갈 수 있다. 당장은 아니라도 에들먼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 선수를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해 육성해야 한다.

jsi@bostonkorea.com

# [MLB] 볼티모어선 "김현수 등 KBO출신 빅리그 성공 여부 미지수"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미국 현지 언론이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 등 한국 프로야구 출신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면서 김현수의 마이너리그행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 볼티모어 지역 매체인 볼티모어선은 31일(한국시간) "많은 팀들이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최근 볼티모어 구단 관련 이슈의 중심에는 김현수가 있다. 시범경기에서 부진하자 박 쇼월터 감독과 현지 매체들은 김현수를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시키고 마이너리그로 보내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날 또 다른 지역매체 'MASN'은 "김현수가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리그행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쇼월터 감독의 발언을 보도했다.

볼티모어선은 "김현수는 오랜 기간 한국에서 최고의 타자였다. 하지만 KBO 타자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비교해볼 수 있는 선수는 강정호 뿐이다"며 "한국 선수들을 평가했던 한 미국인 캐리커처가 한국 프로야구와 트리플A를 동급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한국 선

수들을 지켜볼 때 어떤 장점이 빅리그에서 통할지에 집중한다. 강정호는 뛰어난 운동신경, 박병호는 힘이 최고 장점이었다"며 "강정호와 박병호의 장점은 적응에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현수에 대해서는 "김현수의 강점은 타격 기술과 타석에서의 선구안이다. 신체적인 장점보다 김현수의 장점은 메이저리그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기술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것도 언급했다.

볼티모어선은 "쇼월터 감독과 구단은 김현수가 왜 시범경기에서 부진한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김현수는 볼티모어 강타자들과 연습을 하면서 파워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결과 김현수는 밀어치는 기존의 스타일이 아니라 당겨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범경기 중 김현수와 쇼월터 감독은 한국에서의 영상을 함께 보면서 문제점에 대해 파악했다. 이후 김현수는 밀어치는 방식으로 돌아왔고 더 좋은 타구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수는 지난해 12월 볼티모어와 2년 70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고 주전 좌익수라



볼티모어 오리올스 김현수

는 평가를 들었다. 그러나 시범경기에서 타율 0.182로 부진하면서 입지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현수가 마이너리그행을 거부한다면

볼티모어는 그를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시키거나, 계약했던 700만달러를 주고 방출해야 한다.

alexsei@news1.kr

#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 <고객 절약 사례>

- 본손: 20% 절약
- 돼지곰: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Boston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클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여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권리와 기쁨의 터전입니다 (행 9:31)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일기도회 / 저녁 7시  
영양/영양/초경/영고공부예배/영영부모영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당임 목사 / 무사영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약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당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I49에서 15분 거리

유재부: 밀알교회 목사  
유연부: 밀알교회 목사  
유진: (Doris) 박은진 목사  
유영: (Eun) 김은진 목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UNITED METHODIST CHURCH

담당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0시
주일 학교	오전 10시
전도인 공부	오전 4시
목요 공부	오전 7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3404  
www.bostonunited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영고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영: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Do you have Sunny Roof?**  
Call now to see qualify for Solar Panel!

- No cost to you.
- Have your own power house at home.
- Cut your electric bill dramatically.
- Help environment

No.1 in US  
**SolarCity**

Kevin Yoon, Energy Consultant(한국어가능)  
TEL: 978.390.4738  
EMAIL: kyoons53@yahoo.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에 따라 진리 말씀에 영유하며 믿는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명하며,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믿음, 온유, 인내, 사랑, 온유, 부끄러움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영성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성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영성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3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할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와 2it카드 결제, 가짜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결제대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 신용카드사 총책임자 **이선호**  
781.266.7245



# BOSTON NEHEMIAH INSTITUTE

BNI 평신도신학원은 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신학강사진들을 통해 지역의 한인 평신도들에게 성서신학을 포함한 체계적인 기본 신학과정을 제공합니다.

## 2016년 봄학기 교과과정

요일 및 시간	학사일정	장소	과목명	교수
월요일 7:30-10pm	4/4-5/2(5주)	Central	호세아와 아모스가 말하는 신앙생활	김영호
	5/9-6/13(5주)	Central	과학과 신앙: 적인가? 아군인가?	장성철
화요일 7:30-10pm	4/12-5/10(5주)	North	이민신학 알아보기	이영길/유경렬
	5/17-6/14(5주)	North	한 눈에 보는 마태복음	김이근

Central클래스 :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North클래스 : 나사렛사람의교회 900 Main St. Reading, MA 01867

\* 웹사이트 ([www.bosni.org](http://www.bosni.org))를 통해 자세한 과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사무처장 김건철 목사 (347-551-4152, [bnigeneralsecretary@gmail.com](mailto:bnigeneralsecretary@gmail.com))에게 연락 주십시오.



## 크라우저 앤서 로펌

###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http://www.suhlawyer.com)

##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첫사랑을 기억하며  
낮아짐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새성소에서 드립니다

# NAZAZIM

## Community Church

**낮아짐교회**  
Community Church

71 Center St, Burlington, MA 01803  
2016년 4월3일 오후 2시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Send the Equipped”

복음 전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훈련되어,  
증인으로 살게하는 교회

(녹19:10; 덤후2:2)

담임 목사: 정인홍(Pastor Andy Tschong)

낮아짐의 핵심가치—

**B A S I C S**

- B**ible :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 A**doration :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 S**upplication :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 I**nteraction : 진실한 교제가 있는 교회
- C**ommission :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 S**pirit (Holy Spirit) : 성령님이 움직이는 교회

### 성인 주일예배

1부: 12:30pm

2부: 2pm

###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8:00 pm

### 새벽기도

화-금 5:30-6:10am

### 중보기도

수 9:30-11:00am

### 성경공부

목 8:00-9:30pm

### 차세대 예배

**Dream Zone** Grade6-12 :Pastor Peter Yoon

주일 2:00 pm D.T.S. 금요일 8:00 pm

**J.O.Y. Zone** Grade 1-15: Pastor Samuel Choi Lang

주일 2:00 pm Awana 금요일 8:00 pm

**Manna zone** 2.5-5세: 박윤아 전도사

주일 2:00 pm

[www.nazazim.org](http://www.nazazim.org)

Email: nazazimChurch@gmail.com Tel: 781.832.2013

Nazazim Community Church

**낮아짐교회**  
Community Church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장신고(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한국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재단협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향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500
RH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빌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치 앤젤교회	978-274-2359
엠펙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 시온교회	413-549-9200
일주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 시온교회	918-876-2815
일마누엘 연합교회	617-818-5596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종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센(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유영옥)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턴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티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티어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명금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론퍼서블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성국 변호사	617-239-0839
심광사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치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윌리엄드/엑커먼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가트) (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야힐러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켄지스아치과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송영원치과	978-459-0594
프롭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9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데드햄 네일살롱 테크니션 구함  
초보자 환영  
T. 312-235-9660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청소하실분 부부 구함  
영주권 소지자, 다섯 부부  
T. 617-869-1698

입주해서 쌍둥이 돌봐주실 분 구함.  
Hmart 근처, T. 323-204-7423  
카톡 010-5263-0047 (1월 17일 이후)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N[매매]**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JEWELRY  
MANUFACTURING**

Looking for experienced jewelers, wax injectors, mold makers and mold cutters.

Professional Environment  
Great Pay

PLEASE CONTACT:  
Roger 774.312.1270  
Hrach015@gma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포도상 튜터링

Nabis Studio



## '탐정 홍길동' 이제훈, 거칠고 섹시한 다크 히어로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대세 배우 이제훈이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히어로 '홍길동'으로 변신해 여심을 사로잡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제훈은 지난 2010년 영화 '파수꾼'에서 성장통을 겪는 소년 기태 역을 맡아 그 해 영화계 신인상을 휩쓸며 충무로 대표 청춘 배우로 떠올랐다. 최근 드라마 '시그널'을 통해 안방극장까지 사로잡으며 진정한 대세 배우로 거듭난 그가 이번에는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로 다시 한번 색다른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은 겁 없고, 정 없고, 기억 없고, 친구도 없지만 사건 해결은 99%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탐정 홍길동이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단 하나의 사건을 추적하던 중 베일에 싸인 거대 조직 광운회의 충격적 실체를 마주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이제훈은 나쁜 놈 위에서 노는 새로운 히어로, 탐정 홍길동으로 분했다.

홍길동은 불법 흥신소 횡단당의 수장이자 사립 탐정으로 매사 까칠하고 모든 게 귀찮은 권태로운 인물이지만 유독 사건 앞에서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캐릭터다. 이제훈은 그동안 보여줬던 바르고 순수한 청년 이미지와는 다른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홍길동은 사건 해결에는 천재적이지만 어릴 적

사고로 8세 이전의 기억과 공감 능력을 잃어 결핍이 많은 캐릭터. 이와 같은 인물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위해 이제훈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홀로 캐릭터의 감정과 행동, 말투 연습에 매진하는 등 홍길동으로의 변신에 대한 열의를 아끼지 않았다.

나쁜 놈을 처단하지만 착하지 않고, 히어로지만 완벽하지 않아 히어로의 전형성을 깨부순 한국형 다크&안티 히어로 홍길동은 캐릭터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이제훈의 풍부한 연기와 만나 매력점점의 새로운 히어로로 탄생했다.

이제훈은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이전에 많았지만 홍길동은 기존의 캐릭터들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만 한 것도, 비현실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인물도 아니다. 하지만 나쁜 놈들 머리 위에서 노는 탐정이라는 전형적이지 않은 캐릭터가 신선하고 매력적이었고 그 자체가 나에게도 도전이었다"고 전하며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이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롭고 참신한 소재로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임을 자부했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은 오는 5월 개봉한다.

aluem\_chang@news1.kr



## '대배우', 감동 · 웃음의 관람 포인트 3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모두의 마음을 흔드는 오달수식 위로를 전하는 '대배우'가 영화의 감동과 재미를 더해줄 관람포인트를 공개했다.

오는 30일 개봉하는 영화 '대배우'는 20년째 대학로에서 연극만 하던 장성필(오달수 분)이 새로운 꿈을 좇아 영화계에 도전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 공감 코미디다.

1. 이 시대의 모든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

영화 속 장성필이라는 인물은 20년째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파트라슈를 연기하고 있는 무명배우다. 극 중 장성필로 분한 배우 오달수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장성필이란 인물이 꿈을 이루기 위해 긴 시간을 투자했다는 점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현실의 무게에도 치우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그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꿈꾸는 청춘들에게 꿈이라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2. 연기 내공 도합 70년차 대배우들의 진솔한 이야기

이번 작품을 통해 뭉친 오달수, 윤제문, 이경영은 충무로의 이름난 베테랑 배우. 그들

의 이번 만남 만으로도 영화계와 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대배우'는 세 배우의 자전적 이야기와 같은 진짜 배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감동이 배가된다. 특히 연극무대로 데뷔해 영화계로 진출한 배우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명의 시절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배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영화 속 이야기는 관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극 중 무명배우 장성필과 국민배우 설강식의 대비되는 모습을 만나는 것도 영화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다.

3. 전무후무한 카메오, 그리고 대작의 오마주까지

'대배우'에는 다시 볼 수 없을 카메오들이 등장해 극의 흐름을 매끄럽게 돕는다. 특히 배우 김명민은 "카메오 출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해 그의 깜짝 출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첫 카메오 출연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명민을 비롯해 이준익 감독, 유지태, 김새론까지 충무로 대표주자들의 카메오 출연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깜작 선물로 다가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과 '박쥐'를 오마주한 영화 속 영화도 놓치지 말아야 할 관람 포인트로 손꼽힌다.

aluem\_chang@news1.kr

## 송중기 '9시뉴스에서 이런 질문 받을 줄...' 당황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송중기가 9시뉴스에서 이상형 질문을 받았다.

지난 30일 방송된 KBS1 '뉴스9'에서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한류스타로 급부상한 배우 송중기가 특별 출연해 앵커와 대담을 가졌다.

이날 송중기는 '한류스타'로 등극한 것에 대해 "내가 그런 수식어가 붙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쑥스러워했다.

이어 극중 강모연 역의 송혜교, 윤명주 역

의 김지원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이상형이라는 질문에 "뉴스9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다"며 멧쩍은 웃음을 지었다.

송중기는 잠시 망설이다 "아무래도 더 많이 호흡을 맞춘 송혜교씨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말 안 하면 빠질 것 같다"고 재치있게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송중기가 출연한 '뉴스9'는 23.3%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다.

star@news1.kr



## '마스터' 조재현 티저 공개, 뜨겁고 강렬한 욕망의 화신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마스터' 조재현이 불의 화신으로 변신했다.

KBS2 새 수목드라마 '마스터-국수의 신'(극본 채승대, 연출 김종연) 측은 31일 욕망과 권력의 끝인 김길도 역으로 활약할 조재현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DC 코믹스의 인트로를 오마주한 두 번째 티저는 조재현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화염이 치솟을 것 같은 일러스트의 시너지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으면 남의 운명을 송두리째 훔치면 돼"라고 읊조리는 조재현의 묵직한 내레이션이 더해졌다.

조재현의 강력한 아우라와 붉게 피어난 이미지의 만남은 김길도 캐릭터의 굴곡진 인생과 당찬 성격을 압축해 놓은 듯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

'마스터-국수의 신'은 한 남자의 치열한 성장을 중심으로 저마다 사연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이 얽히고설켜 스펙터클한 이야기를 담아낼 드라마다. 박인권 화백의 만화 '국수의 신'을 원작으로 하며 오는 4월27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ppbn@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6년 3월 21일 ~ 2016년 3월 27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공사창립특별기획(태양의후예)	31.0%
2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4.4%
3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5.7%
4	MBC	주말특별기획(결혼계약)	19.4%
5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7.7%
6	KBS1	KBS9시뉴스	17.7%
7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 나르샤)	16.8%
8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5.8%
9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14.8%
10	KBS2	해피선데이	14.1%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4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5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6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7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8	SBS	주말드라마(그래, 그런거야)
9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0	MBC	일일연속극(최고의연인)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넌 is 뭔들	마마무
02	사랑에 빠졌조 (당신만이)	장범준
03	그녀가 곁에 없다면	장범준
04	시간을 달려서 (Rough)	여자친구
05	한숨	이하이
06	어디에도	엠씨 더 맥스
07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08	너는 나 너는 너	지코 (ZICO)
09	같은 곳에서	소녀온탑
10	봄인가 봐 (Spring Love)	에릭남, 웬디

## 숫자 퍼즐 (Sudoku)

							5	
4		7	8	9				
1	8		3		2			7
		3			4		7	
2	7						3	6
	5		7			4		
7			4		1		6	9
				7	3	5		8
	4							

4월 3일 - 4월 9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금전용통이 수월하게</b></p> <p>●운수:모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심신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청명하게 갠 하늘처럼 머리로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금전: 차츰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금전용통이 수월하게 잘 풀리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애정: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p>	<p><b>소띠   기대와는 다르게</b></p> <p>●운수:가만히 두면 기분이 점점 더 가리얏게 됩니다. 우울함을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남을 믿고 돈거래를 하면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일체 거래하지 마세요. ●애정: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p>	<p><b>범띠   가랑비에 옷 젖듯이</b></p> <p>●운수:혹시라도 만나주지 않을까 염려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진행될 것입니다. ●금전:편한 것에 안주하던 발전이 없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시도해야 발전이 있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애정: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p>
<p><b>토끼띠   미리 확인을 하고</b></p> <p>●운수:예약이나 약속을 한 것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괜히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대로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무리이니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애정:좋았을 때는 그런대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지니 더 이상 참고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4, 7일 길일. 6, 9일 주의.</p>	<p><b>용띠   타인의 시선을</b></p> <p>●운수:계속해서 쓰자니 여러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당장 다른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니 직원 문제로 고심하게 됩니다. ●금전:무난하게 지나갑니다.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수입이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그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8, 9일 길일. 6, 7일 주의.</p>	<p><b>뱀띠   편하게 생각해야</b></p> <p>●운수:모두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것이니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금전:큰 소득을 바라면서 욕심내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애정:혼돈의 계절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스스로도 제어하기가 힘들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6, 9일 길일. 5, 8일 주의.</p>
<p><b>말띠   급한 순서를 정해서</b></p> <p>●운수:현재 상황만 가지고 미리 속단하지 마세요. 인생이란 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전:들어오는 것을 조금이지만 써야 할 일이 많으니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것입니다. 급한 순서를 정해서 지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애정:쉽게 바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봐줄 자신이 없으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5, 7일 길일. 3, 6일 주의.</p>	<p><b>양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b></p> <p>●운수: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금전: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꼭 써야 하는 물건이 고장이 나가거나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이미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 6일 길일. 4, 7일 주의.</p>	<p><b>원숭이띠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b></p> <p>●운수:대부분의 사람은 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먼저 조금만 양보하면 만사가 편해집니다. ●금전: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라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애정: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합니다.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큼 두 사람의 사이의 간격도 좁혀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9일 길일. 3, 5일 주의.</p>
<p><b>닭띠   유리한 상황으로</b></p> <p>●운수:때로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금전:추진해오던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자금 사정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 희망도 보입니다. ●애정:우선은 믿어주어야 합니다. 이쪽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상대도 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4, 5일 길일. 3, 6일 주의.</p>	<p><b>개띠   정보에 의존해서</b></p> <p>●운수: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금전:들어오는 것이 있으나 나가는 것도 많을 때입니다. 지금은 현상유지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애정: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 때문에 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6일 길일. 4, 7일 주의.</p>	<p><b>돼지띠   다시 한 번 실감</b></p> <p>●운수: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쉽지 않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금전: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애정:구관이 명관입니다. 새로운 것만 찾지 말고 오랫동안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p>

## '힙합의 민족' 이제 할머니 스펀지에게 빠질 시간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할머니들이 래퍼가 된다. 공금증을 자아내는 유쾌한 콘셉트만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히든싱어', '슈가맨' 등으로 음방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JTBC의 야심찬 도전이 엿보인다.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대회의장에서 열린 JTBC '힙합의 민족' 제작발표회에는 래퍼 도전을 앞둔 김영옥, 최병주, 영정인, 양희경, 김영임, 이경진, 이용너, 문희경과 이들의 프로듀서 MC 스나이퍼, 피타입, 릴보이, 치타, 키디비, 딘딘, 한해, 주현, MC인 산이가 참석했다.

'힙합의 민족'은 8명의 할머니 래퍼와 8명의 힙합 뮤지션이 각각 팀을 이뤄 총 5번의 배틀을 벌인다. 최종 우승하는 할머니가 1캐럿의 다이아몬드 상금으로 받는다. 8인의 프로듀서는 할머니들을 랩 줌 하는 '할미넴'으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김영옥은 "80세에 힙합 가수로 등용한 김영옥이다. 처음에 내가 뭘 한다고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더라. 놀다 가라고 해서 들어왔다. 놀다가

는 기분으로 하기에는 살이 다 빠질 정도로 겁이 나고 세계 훈련을 시킨다. 감언이설에 속아서 시작했다"고 출연 과정을 공개했다.

할머니와 힙합의 만남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잠재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법. 방송을 통해 신랄한 욕 연기를 보였던 김영옥 외에도 소리꾼으로 활동하는 김영임, 가수인 양희경, 랩을 이미 선보인바 있는 최병주 등이 보여줄 무대에 기대가 모인다.

또한 할머니들의 랩을 지도하겠다고 나선 프로듀서와의 호흡이 새

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던 딘딘과 피타입, 한해, 릴보이와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했던 치타, 키디비, MC 스나이퍼까지 합세해 막상 라인업을 완성했다.

'힙합의 민족'은 음악 예능 흥수 시대에 대해 음악인 힙합을 주요 소재로 하지만 낯설게 다가올만큼 신선한 콘셉트를 예고하고 있다. 할머니들의 성장기를 기대케 하는 '힙합의 민족'의 첫 무대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 전효성 "뮤비 속 탈의 장면, 진정한 날 찾는다" 의미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전효성이 뮤직비디오 속 탈의 장면 대해 밝혔다.

시크릿 전효성은 28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 무브홀에서 열린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물들다: Colored'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나를 찾아줘' 뮤직비디오에 대해 말했다.

전효성은 "나를 찾아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처음에 나오는 부서진 방이 부서진 자아다. 방 내부 구조가 부서지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뭔가를 깨닫는다. 마지막에 리와인드 되고 원상복구 되면서 나를 찾는다"고 뮤직비디오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전효성이 액세서리와 옷을 벗고 등을 노출하며 뒤 돌아보는 장면이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복도에서 화려한 장신구를 벗어던



지는데, 꾸며진 것들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나를 되찾는다, 나를 찾고 싶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넣었다"고 해당 장면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전효성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소망을 이번 앨범에 담아냈다. 타이틀곡 '나를 찾아줘'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너만의 나를 찾고 싶다'는 가사가 조화를 이룬 하우스비트 댄스곡이다.

ppbn@news1.kr

## '라디오스타' 설현 허 짧은 애교에 "치명적이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라디오스타' 설현이 애교로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설현은 30일 밤 11시 10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의 '넌 is 뭔들' 특집에서 입간판 포즈에 대해 "의도를 하고 포즈를 취한 것은 아니다. 들어오라는 포즈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현은 애교 퍼레이드에 앞서 "평소 애교가 많은 편이 아니다. 목소리 톤이 높지 않아서 아쉬워 하시더라"며 팬들을 위해 애교를 준비했다고 고백했다.

aluem\_chang@news1.kr



## '해투' 강예원, 유재석 복근 몸매 인증 "근육 제일 많아"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강예원이 유재석의 근육질 몸매를 인증했다.

강예원은 31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성악과 출신으로서 복식호흡을 가르쳐줬다.

강예원은 거침 없이 송재희의 배에 손을 대고 가르쳤다. 이어 이상윤의 배에도 손을 대면서 복식호흡법

을 알려줬다.

유재석이 나오자 강예원은 똑같이 배에 손을 대보더니 "근육 있다! 장난 아니다"며 놀랐다. 강예원은 수업을 하려 했지만 다시 "멋있다"며 놀라워했다. 강예원은 "여기서 근육이 제일 많다"며 유재석의 근육질 몸매를 증명했다.

ppbn@news1.kr



천지보살

명사주공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9 - GDT - LMS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광렬+최민수가 연 '대박'의 서막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전광렬과 최민수가 목직 한 연기력으로 '대박'의 서막을 열었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대박'(극본 권순규/연출 남진) 1회는 옥좌를 탐하는 자 이인좌(전광렬 분)가 숙종(최민수 분)을 밀어내기 위해 복순(윤진서 분)을 이용하는 이야기를 풀어내 시청자들을 집중하게 했다.

이날 첫 방송에서는 장근석, 여진구의 이야기는 전개되지 않았다. 백대길 역의 장근석은 극 초반 이인좌와의 기싸움으로 잠깐 등장했으며 연잉군 역의 여진구의 모습은 없었다. 1회는 백대길과 연잉군이 태어나기 이전 이야기가 그려졌다. 전광렬과 최민수, 이문식과 윤진서가 전체적인 이야기의 초석을 깔면서 백대길과 연잉군이 어떤 관계에 놓일지 풀어나갔다.

전광렬과 최민수는 '대박' 1회를 목직하게 잡아줬다. 전광렬은 야심으로 가득 찬 이인좌 역을 맡아 표현은 절제됐지만 눈빛과 말투에서 이인좌의 본심을 드러냈으며 최민수



는 여성적인 느낌의 숙종을 만들면서 이전 사극들에서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이문식 역시 노름에 중독돼 아내마저 관둔으로 거는 백만금으로 완벽 변신했으며 윤진서는 남자들 때문에 풍파를 겪는 복

순의 삶을 처연하게 그려냈다. 배우들의 연기과 흥미로운 스토리가 얹혀지면서 '대박' 1회는 불만 한 사극의 탄생을 알렸다.

ppbn@news1.kr

### 티보플레이 3월 4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우리집 꿀단지        |
| 2  | KBS |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
| 3  | KBS | 아이가 다섯         |
| 4  | SBS | 내 사위의 여자       |
| 5  | MBC | 내일도 승리         |
| 6  | MBC | 아름다운 당신        |
| 7  | MBC | 가화만사성          |
| 8  | SBS | 그래, 그런거야       |
| 9  | SBS | 천상의 약속         |
| 10 | MBC | 최고의 연인         |

### 티보플레이 3월 4째주 신규 방송

- |   |         |
|---|---------|
| 1 | 뱀파이어 탐정 |
| 2 | 페이지터너   |

### 티보플레이 3월 4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좋아해줘 | 유아인, 최지우 |
| 2 | 멜리스  | 홍수아, 임성언 |

# 좋아해줘' 3色 커플 키스 1초 전, 가슴 떨리는 로맨틱 스틸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좋아해줘'가 이미연과 유아인, 최지우와 김주혁, 강하늘과 이솜, 세 커플의 키스신 스틸을 전격 공개했다.

오는 17일 개봉되는 영화 '좋아해줘'는 대책 없이 '좋아요'를 누르다가 진짜 좋아져 버린 내 생애 가장 설레는 로맨스로 이번에 공개된 역대급 사랑꾼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이번에 공개된 키스신 스틸은 세 커플의 로맨틱한 순간을 포착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달군다. 먼저 이미연과 유아인, '이유 커플'의 키스신은 노진우(유아인 분)가 자신을 마냥 어린애로만 취급하는 조경아(이미연 분)에게 "이래도 귀여우실까?"라며 박력 있게 다가와 키스를 하는 장면이다. 연하남 유아인의 박력과 남자다운 매력이 돋보이는 키스신이다.

이에 '좋아해줘'는 개봉을 앞두고 이미연과 유아인, 최지우와 김주혁, 강하늘과 이솜, 세 커플의 로맨틱 키스신 스틸로 영화 속 이들이 펼칠 역대급 로맨스 호흡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 TBO PLAY

보스톤 근교 지역 공식 딜러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 \$39.99

##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Cell: 781.883.5984  
Email: chunglee7@gmail.com  
607 Boylston St., Suite 500  
Boston, MA 02116  
www.kw.com

### NEW LISTING

세탁소 연 350만불 매상  
오너 파이낸싱 및 건물 포함 가능



#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LISTINGS

- 1. Full Plant 클라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급매**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 7.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8.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 9. Single family : 22 Wilow park, Wellesley **SOLD**
- 10.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 12. 마림 식품 : Allston **SOLD**
-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 NEW LISTINGS

오픈하우스: 4월2일 토요일1시부터 2시30분  
4월3일 일요일 2시부터 3시30분

**콘도**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2Bed 1Bath 1parking  
좋은 위치, 하버드 스퀘어에서 버스로 10분.  
Asking **\$429,0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23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1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40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해가 질 무렵이면, 나는...

겨울의 햇살 끝은 참으로 짧다. 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다 보면 어느샌가 겨울 그리고 봄 어김없이 왔다 지나가는 계절과 계절 사이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듯싶다. 하지만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그 짧은 찰나의 한순간도 같은 날은 없었다. 세월의 덮개에 무더진 감성이 그냥 지나쳐버렸을 뿐이다. 내게 남은 봄과 여름은 몇 번이 될까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몇 년을 더 맞을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자신 속 깊은 자신과 대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면하지 않으려 한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켜가고 싶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해 본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삶은 생각 이상만큼의 차이가 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나와 늘 함께 동행하는 그림자인 것이다. 그것이 내가 되었던 내 배우자가 되었던 간에 우리에게 그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인 것이다.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식 그 외의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일을 경험해본 이는 알 일이다.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며 견딜 수 없는 고통임을 말

이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또한 복된 사람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 제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나이가 어려서는 무엇인가 걱정과 염려 없이 일일 술술 잘 풀리면 세상이 모두 내 것인 양 행복에 겨워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 앞에서도 그저 체면이나 인사치레 정도로 마주한 것은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지나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한다. 물론 나 자신이 어려운 일을 한두 번 겪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내 일 남의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야 진정한 삶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야 비로소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연년생인 세 아이를 키우면서 참으로 분주하게 살았다. 아이들 학교 공부와 그 외의 과외 공부 그리고 음악과 스포츠를 위해 세 아이를 내려주고 데려오는 시간은 택시 드라이버가 된 것처럼 시간에 쫓기며 초침을 따라 움직였던 날들이었다. 그때는 그 일이 힘들

다고 생각해 볼 틈도 없었다. 물론 그 일이 즐겁거나 행복하다고 여겨 볼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세 아이를 모두 대학 기숙사에 보내놓고서야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 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행복했던 시간이었던가를 말이다. 이 모두가 지나놓고서야 그 시간의 참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던가.

남편도 썩 괜찮은 사람이었다. 참으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건장한 청년이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한 나는 너무 행복했고 함께 어디를 가나 든든했다. 젊은 부모님 밑에서 삼남매의 막내로 자란 남편은 만 6살에 이민을 왔다. 그리고 아버지 선에 얻은 늦둥이 막내인 나는 청소년기를 마치고 미국에 왔다. 그런 이유로 남편과 나는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났다. 10년 전 어느 날의 하루 남편의 느닷없는 건강의 적신호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다.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니 오늘을 맞는다.

지천명에 올라 지난 시간들을 반추하며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삶에서 어찌 이런저런 일들이 내게만 있었을까마는 누구

나 내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여기지 않던가. 세 아이를 키우며 정신 없이 지냈던 시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자라 제 갈길을 찾아가니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앞으로 다가 올 내 삶의 밑그림의 스케치를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다. 여백이 많아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삶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다. 나이 들어가며 서운하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에 나이 들어가며 좋은 것들이 하나 둘 느니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이처럼 환한 대낮에 눈이 부셔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서산에 해 질 녘이면 천천히 바라볼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다. 내 삶의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천천히 바라보고 느끼고 기다리며 마중할 수 있어 고마운 것이다. 이런저런 삶의 모자이크들을 주어모으며 어수선하고 분주했던 한낱의 수다마저도 빠드릴 수 없는 한 조각의 그림인 것을 이제야 사뭇 깨달아 간다. 이 세상에 그 무엇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을까. 이 시간마저도 지나면 오지 않을 귀한 것일진대, 내 삶과 마주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고맙고 감사할 뿐임을 고백하는 오늘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그의 이름을 부르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봄이면 들꽃이 핀다. 이름을 다 알지 못한다. 야생화중에 민들레만 안다. 하지만 이견 여건 성가신게 아니다. 우리집 좁은 마당에도 눈감박 할 사이에 지천으로 피어 오른다. 게다가 흩날리는 씨를 막을 수는 없다. 질긴 생명력과 번식력은 대단하다. 이름은 예쁘다.

내 고등학교 친구는 호號가 있다. 어릴적 그의 형이 붙여준 거다. 그는 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내가 그 친구에게서 탐내는 것중 하나다. 신외세 新外洗. 우린 줄여서 외세라 부른다. 부르기 멋들어 지지 않는가. 호號가 붙여진 사연은 희극이다. 그의 이름으로 신문구독, 외상값, 그리고 세탁소와 거레가 이뤄졌다. 앞자만 따온 거다. 그 친구집에선 동아일보를 구독

했다. 동네 구멍가게에선, 라면과 소주를 주로 외상으로 가져다 먹었다. 세탁소에는 무얼 맞겼는지 모르겠다. 단지 그의 형들이 붙여준 호이므로 자자와의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다.

내가 내게 붙인 호는 우인又仁이다. 또 우와 어질 인仁을 넣었다. 누가 지어 주는 이 없어, 내 스스로 가져다 부르기로 한거다. 이름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 그렇다. 지어 놓고 보니 부르기 쉽고 쓸만하다. 붙인 뜻도 가상하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이 말을 듣고 한마디했다. 역장을 무너뜨린다. '혹시 우자가 어리석을 우뚱자 아닌가.' 입을 다물고 속으로 투덜댔다. '아주 염장을 질러요'. 그나마 근심 우뚱자 아니 다행이랄까. 이름은 역시 부르기 쉬워야 한

다. 뜻을 같이 한다면 더욱 좋을게다.

제비꽃도 가끔은 제 이름 싫은지 모른다. 수선화, 봉선화, 채송화 언제 들어도 화사한 이름들 부러운지 모른다. 꽃잎으로는 날 수도 없는데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제비라니, 제비꽃도 가끔은 이름 바꾸고 싶은지 모른다. (김채영, 이름에 대하여)

이은상 선생의 호는 노산鷲山이다. 친구분들

이 놀렸다 했다. 노鷲는 두루미인데, 두루미는 물가에 있어야 한다. 그런 두루미가 산에 올라 갔다니,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말일게다. 얼마나 날카로운 해석인가. 또 있다. 오상순 선생은 공초空超라 했다. 공초는 센 발음으로는 공초가 된다. 선생은 대단한 애연가 였다고 했다. 얼마나 멋진 호인가. 우리 선배님들 해학은 대단하다.

민들레는 민들레라 불러야 할까. 댕들리언으로 불러야 하는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할텐데. 그건 미안하다. 제비꽃은 어떻게 생겼던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 3:15)



**강원도에서 강력 추천품!**

**강원도 우수 농수산물전**

반건조코다리, 삭힌홍어, 꽃감,  
모시잎송편, 모시잎개떡,  
무청시래기, 안흥찐빵, 청국장

# 시골장터

교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장소 : 뉴릴라이어블 마켓

45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TEL. 617-623-9620

**행사기간 : 4월8일(금)~4월10일(일), 3일장**

**행사문의 : 617.623.9620**

<p><b>갯갈류</b></p> <p>명란젓, 창란젓, 조개젓, 어리굴젓, 가지미 식혜, 낙지젓, 갈치숙젓, 멍게젓, 오징어젓 황태회무침</p> 	<p><b>반찬류</b></p> <p>무말랭이, 고들빼기, 도라지 무침, 더덕무침, 매실장아치, 양념깻잎, 양념고추, 된장깻잎, 된장고추, 마늘쫑, 방계무침등</p> 	<p><b>나물류</b></p> <p>취나물, 곤드레, 부자깻이, 건도라지, 토란대, 표고버섯, 무청시래기 무말랭이 등</p> 	<p><b>면치류</b></p> <p>다시면치, 볶음면치, 지리멸치, 멸치국물용 가루</p>	<p><b>떡종류</b></p> <p>강원도 오색감자떡  모시잎송편, 모시잎개떡</p>
<p><b>건어물</b></p> <p>황태포, 황태채, 북어채, 황태머리, 흥진미채, 마른오징어, 전새우, 노가리등 가문어, 디포리, 반건조오징어</p> 	<p><b>해초류</b></p> <p>참미역, 다시마, 미역귀, 돌자반 김, 김밥용 김, 즉석구이 등 <b>말린꽃</b></p> 	<p><b>생선류</b></p> <p>반건조코다리, 삭힌홍어회</p> 	<p><b>기타</b></p> <p>잡쌀떡과, 100% 표고버섯가루 100% 다시마가루 100% 도라지가루 당뇨에 아주좋은 말려여주차 <b>대봉꽃감</b></p> 	
<p><b>건강식품</b></p> <p>도라지 100% 진액, 겨우살이, 삼계탕용 재료, 황기, 당귀, 산수유, 오미자, 매실원액, 100% 산약마가루, 당뇨에 좋은 개동쑥</p> 	<p><b>장류</b></p> <p>고추장, 된장, 막장 고로쇠 국간장, 청국장 다시마 국간장 참기름, 들기름</p> 	<p><b>잡곡</b></p> <p>메밀묵가루, 메밀부침가루, 메밀국수, 은행마죽, 버섯더덕마죽, 들깨가루, 엿기름, 엿</p>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3. 시팅불과 운디드니 대학살 (1)

운디드니 대학살 (계속)

살아남은 부상당한 인디언 51명은 그날 밤에야 파인릿지 군부대에 도착했다. 들어갈 막사가 없어서 포장도 없는 마차위에서 떨고 있을 때에 한 장교가 성공회 교회의 의자를 끌어낸 후 마룻바닥위에 마른풀을 깔아서 거기서 자도록 배려해 주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아직 그대로 있었으며 교회 안에 붙어 있는 배너(banner)에는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겐 적선'(PEACE ON EARTH, GOOD WILL TO MEN)이라고 쓰여 있었다. (디 브라운의 전계서 524 페이지 인용) 그 때까지도 인디언은 미국법에 의한 사람(시민)이 아니었으며 전쟁상황속에서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적군 집단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미국의 인디언 정책에 저항하여 지정된 인디언 거주지역을 벗어나 있는 인디언들을 적대적 인디언으로 규정하고, 미군에 잡혀온 인디언들을 전쟁포로로 취급한 사실 등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운디드니 대학살 후 시신처리 모습>

Act of 1924)이 제정됨으로써 인디언들도 드디어 미국의 시민지위를 얻게 되었다.

### 13. 크레이지 호스의 부활 크레이지호스의 생애

크레이지 호스 (Crazy Horse; Tašúŋke Witkó, Tasunke Witko)의 출생연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자료가 있는데 대체로 1840년이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은 '대자연 속에서' 또는 '나무들 속에서'의 뜻을 갖는 Cha-O-Ha이었다고 한다. 모계 중심 사회인 인디언들의 이름에는 성과 이름이 따로 있지 않고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물에다 수식어를 적절히 보태어서 이름을 짓는 전통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어찌면 시적이거나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름들이 만들어진다. 크레이지 호스라는 이름은 원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그가 성인이 되어 전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을 확인한 후 그의 아버지는 그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버지는 다른 이름 '벌레'(Worm)로 바꾸었다고 한다. 라코타어 이름인 Tašúŋke Witkó의 원래 뜻은 'His Horse is Crazy'인데 백인들이 부르기 쉽게 'Crazy Horse'로 불렀다고 한다. 아버지는 라코타(Lakota; Teton Sioux) 부족의 오글라라지파(Oglala)이나 어머니 Rattling Blanket Woman은 같은 라코타어인 하나 미니콘주지파(Miniconjou) 출신이다. 어머니는 크레이지 호스가 네 살 때에 돌아가셨

다.

크레이지 호스의 친가와 외가에는 뛰어난 추장과 전사들이 즐비하다. 그의 삼촌인 작은 매(Little Hawk)는 오글라라의 유명한 전투 추장이었으며 작은 매와 같은 이름을 가진 친동생은 용감한 전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외삼촌 점무늬 꼬리(Spotted Tail)는 미니콘주지파와 브룰레지파가 1864년 샌드크리크 대학살 후에 연합하게 되면서 브룰레의 추장으로 추대되었고, 외사촌인 구름을 잡아라(Touch the Clouds)는 1875년부터 그가 죽은 해인 1905년까지 30년간 추장을 맡아 미니콘주지파를 이끌었다.

1854년 크레이지 호스가 열 네 살 나던 해에 그레이트 소위 사건으로 브룰레지파 추장 정복하는 꿈이 미군에 의하여 피살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백인에 대한 적개심을 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855년 9월 3일 하니(William S. Harney)의 부대가 네브래스카의 Blue Water Creek에 있던 브룰레 인디언 캠프를 기습하여 86명을 살해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면서 백인에 대한 복수심이 더욱 커졌다고 한다. 많은 인디언 지도자들이 그리하듯이 크레이지 호스도 수차례 행한 비전탐구(vision quest)에서 자신이 앞으로 전사로서 살아야 할 방향에 대한 영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비전탐구란 특히 평원인디언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지던 일종의 금식기도로서 비전을 구하고자 하는 인디언(주로 젊은이들)이 깊은 숲속이나 마을

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인디언의 정령 Wakan Tanka(Great Spirit, Great Mystery)에게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과 인생경영에 관한 정령의 가르침을 얻는 과정을 뜻한다.

1850년대 말과 60년대 초반에 걸쳐 라코타와 적대관계에 있던 크로우족(Crow)과 포니족(Pawnee) 등과의 전쟁에서 크레이지 호스는 크게 용맹을 떨쳤다. 특히 1865년에 있었던 플래트강 다리 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용감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전투추장(Ogle Tanka Un; Shirt Wearer 또는 war leader)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그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Black Buffalo Woman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크레이지호스가 청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렸다. 크레이지 호스는 고민 끝에 1867년 가을에 그 여자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실행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들이 묵고 있는 티피로 찾아와 크레이지호스에게 총을 쏘았다. 다행히도 크레이지 호스는 큰 상처는 입지 않고 턱에 가벼운 부상만을 입었다. 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전투추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Black Buffalo Woman과의 결혼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1871년 Black Shawl과 결혼하여 They Are Afraid Of Her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다. 그러나 그 딸은 1873년에 사망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24 화랑세기花郎世紀, 2세 풍월주風月主 미진부공未珍夫公(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모를 질투하면서 급기야 살인으로 이어졌고, 결국 원화제도는 폐지되었다.

먼저 삼국사기(신라본기 진흥왕 37년, 576년)를 보면 "37년 봄에 처음으로 원화를 받들었다. 일찍이 임금과 신하들이 인물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 걱정하다가, 무리들이 함께 모여 놀게 하고 그 행동을 살펴본 다음에 발탁해 쓰고자 하여 마침내 미너 두 사람 즉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을 뽑고 무리 300여 명을 모았다. 두 여인이 아름다움을 다투어 서로 질투하여,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에 유인하여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되자 끌고 가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이 사형에 처해지자 무리들은 화목을 잃고 흩어지고 말았다." 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후 다시 미남자를 택하여 곱게 꾸며 화랑이라 이름하고 그를 받드니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라고 한다. 삼국사기를 편찬 할 때 김대문의 화랑세기도 참고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준정이 사형에 처해지자 준정을 따르던 무리들이 스스로 화목을 잃고 원화가 없어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화랑세기에는 지소태후가 폐지하고 화랑을 설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을 받들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두 원화 무리들의 시기질투 살인사건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남모는 공주이다. 남모공주(南毛公主, ? - 576)는 법흥왕과 보고공주 부여씨

의 딸이며 백제 동성왕의 외손녀이다. 그리고 지소태후의 이복 자매이다. 또 한 명의 우두머리 준정은 영실공(박영실)을 섬겼는데 박영실은 지소태후의 세째 남편이다. 지소태후는 아버지 법흥왕의 유명을 받들어 영실공을 계부繼夫로 맞았지만 그를 좋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과 상황에서 300여명씩의 무리를 거느린 남모와 준정은 서로가 더 많은 무리를 차지하여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였다. 남모는 자신이 법흥왕의 딸이라는 신분과 지소태후를 등에 업었고, 준정은 영실공을 섬겨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준정의 그 노력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으며 지소태후가 준정에게 물려날 것을 종용하면서 남모들을 남모에게 더 주었다. 이에 시기와 앙심을 품은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많은 술을 억지로 먹고 강물에 던져 죽였다. 그리고 준정은 사형당했다. 그 해가 바로 576년이다. 이 '원화' 설치와 '남모와 준정'의 사건은 576년 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역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원화가 조직되어 운영된 기간이 몇 주 내지는 몇 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삼국사기에서 인용한 위의 글만 봤을 때이며 원화의 제도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화랑세기 서문에 보면 "옛날 연부인燕夫人이 선도를 좋아

하여 많은 미인을 길렀는데 이름하기를 국화國花라 했다. 그 풍습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로서 원화源花를 삼았다." 연나라(기원전 1046년 ~ 기원전 222년)는 춘추시대의 주나라의 제후국이었다고, 전국시대에는 전국 칠웅기운대 하나였다. 그리고 지소태후가 576년에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세운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뒤의 다른 기록으로 유추해 보면 진흥왕 원년인 540년이 더 설득력이 있다. 연부인이 800년의 연대燕代 중 정확하게 언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소가 섭정의 실권을 잡았을 때는 이미 연이 망하고도 700여년이 지났다. 그래서 원화의 존재는 훨씬 이전으로 볼 수 있다.

170) 이능화(1869 ~ 1943, 역사학자, 민속학자)는 '조선해어화사'에서 원화가 기생제도의 본류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물론 아무도 이에 관하여 역사의 기록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능화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소장)가 쓴 '민족사 왜곡과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의 일독을 권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 2016년 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

## 제18회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 (KACL-NE) 정치인턴 모금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는 매년 정기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정치인턴쉽 프로그램과 후원 모금만찬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한인 차세대 후원과 한인의 정치력 신장, 권리 증진위해 꾸준히 힘을 다하고 있는 시민협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는 장기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총 71명의 정치인턴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 찰리 베이커 주지사 사무실을 비롯하여 미셸 우 보스톤 광역 시의원 사무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사무실, 테키 첸 하원의원, 르랜드 청 캄브리지 시의원 사무실에 인턴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주연설자인 Steven Arrigg Koh (고원영) 는 워싱턴 D.C에서 미 법무부 연방검사직을 맡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조지타운 법대에서 외래교수로 법대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티븐 아릭고는故고광림 박사의 손자이며 메사추세츠 보건부 장관을 지냈던 고경주 (Howard Koh)박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행사 일시	2016년 4월 9일 (토) 6:00 P.M
행사 장소	Lexington Elks Club 렉싱턴 엘크스 클럽 959 Waltham St. Lexington, MA (781-862-9759)
티켓 가격 (저녁포함)	일반 : \$60 학생 및 시니어 : \$30
주 연설자	스티븐 아릭 고(고원영) <small>(미 법무부 연방검사 조지타운 법대 외래교수)</small>
행사 문의	이경해 회장 (580.962.2689) 김성군 이사장 (617.799.7033) 임균택 사무차장 (857.207.7711) Email: kyuntaek001@gmail.com

### 엔터테인먼트

소프라노 : 나유선 氏 (가곡 : 그리운 금강산 / 아리아 : Dich Teure Halle), 반주 : 서연 맥도날드 氏  
한국 전통 춤 공연 : 박찬희 氏

### 후원단체

대한민국 주 보스톤 총영사관 · 보스톤 한인회 · NH한인회 · RI한인회 · RI경제인 협회  
민주평통 보스톤 자문위원회 · 보스톤한미예술협회 · NE한인교회협의회 · NE세탁인협회  
보스톤한미노인회 · 이중문화NE지부 · 보스톤체육회 · NE한국학교협의회 · NE한국학교  
NE골프협회 · 보스톤봉사회 · NE서울대학교 동창회 · NE과학협회 · 제노스코  
NE 이화여고동창회

[www.kacl-ne.org](http://www.kacl-ne.org)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25) 부자로 이어지는 투자

복권(Lotto) 당첨으로 부자 될 확률은 어렵습니다. 부자집과 결혼하기에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순간에 부자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순서 없이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낙관적인 마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장래에 주식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믿을 때문입니다. 세상이 곧 어떻게 되리라는 비관적인 마음으론 먼 장래를 기대하며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1927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은 10%입니다. 10% 수익률이란 투자 돈이 7.2년마다 두 배가 되는 수익률입니다. 이것은 15년 후 \$50만 불 투자가 \$20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한 부자들이며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전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편견과 경험에서 탈피:**

잘못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면 투

자는 하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성(risk)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는 약 17년 후에는 절반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돈은 안전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60이면 앞으로 120까지 산다고 합니다. 은퇴 기간이 무려 4, 50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박 투자는 포기:**

특정한 주식에 집중하는 투자로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대박 나는 투자종목이 아니라 붙어날 수 있는 시간(time)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22살부터 로스(Roth) IRA에 \$5,000씩 10% 이자로 투자하면 은퇴할 나이 62살까지 투자하면 노후자금 \$200만이 모여집니다. 꾸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기:**

타인의 시선 때문에 고급 차를 리스(Lease) 합니다. 남의 시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과시하기 위해 힘들게 번 돈을 명품 등에 소비합니

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르는 투자 하지 않기:**

골프친구가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분명한 이해 없이 같은 곳에 투자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공짜로 준다고 투자 강의를 갑니다. 투자하는 사람 대부분은 과는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합니다. 이해하는 투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가 제대로 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전체 경비 이해:**

투자하며 발생하는 '경비(expense, cost, commission)' 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험인, 재정설계사, 브로커, 등은 발생하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다. 금융업에서는 '싼 것이 비지떡이다.' 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으면 그만큼 내 호주머니에 남습니다. 정확한 경비를 모르면서 하는 투자는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막연한 믿음은 금물:**

만들어진 금융상품 투자로는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투자결과가 확실한 금융상품이 있다면 투자에 관하여 대학 가서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종목에 투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경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제대로 형성된 투자라고 말하는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계획 필요:**

투자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젠가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목적이 아니라 그저 허황한 희망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꾸준한 노력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합니다. 한 예로 '은퇴 후 어떠한 식으로 오랜 은퇴 기간 생활비를 마련하는가' 라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상속계획(estate planning)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투자의 목적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면 성공적인 투자로 여유로운 은퇴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성실과 끈기로 태어난 한국인의 의지로 독자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AP US History 준비, 키워드를 분석하면 길이 보인다 (5)

AP 미국사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대목은 에세이였다. 작년부터는 단답형 (Short Answer Questions) 문제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라" "예를 하나 들어봐라" 라는 제시문들이다. 그런데 사실 AP 미국사의 Short Answer는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퀴즈가 아니다. 말 그대로 단어 하나를 쓰는 단답형이 아니라 완성된 문장으로 답해야 한다. (아우라인이나 블릿 리스트 등은 제대로 쓴 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것)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양면성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기존에 알고 있는 미국사 지식을 특정한 주장을 반박 혹은 지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된다.

단답형 문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표준적인 첫 번째 유형은 증거와 주장을 연결하는 형태다. 가령

1. Using your knowledge of United States history, answer parts a and b.

a) Briefly explain why ONE of the following periods best represents the beginning of a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Provide at least ONE piece of evidence from the period to support your explanation.

- Ris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1790s
  - Development of voluntary organizations to promote social reforms between the 1820s and the 1840s
  - Emergence of the Democrats and the Whigs as political parties in the 1830s
- b) Briefly explain why ONE of the other options is not as persuasive as the one you chose.

이 문제는 1790년대 정당의 형성 (일명 1차 정당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과, 1820년대에서 1840년대 사이에 벌어진 사회 개혁의 물결, 그리고 1830년대 민주당과 휘그당으로 분화된 2차 정당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각각 다른 변화들 중에서,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시작을 가장 본격적으로 대표한다고 볼만한 변화는 무엇 일지를 묻고 있는 문제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b)의 접근은 a)와 분리할 수 없다. 즉, a)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에 대한 논거를 제공해야 하고 b)에서는 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적어도 하나 이상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선택을 했건 간에 그 선택이 내세우는 주장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논증 근거를 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령 a)에서 1790년대 정당의 형성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는 선택지를 골랐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마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연방주의당 (Federalist Party)와 민주공화당(Democratic Republican Party)으로 정당시스템이 자리잡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해밀턴의 재정 정책의 핵심 방향에 대한 제퍼슨의 반박이었다. 가령 미국의 중앙은행 (Bank of United States)의 설립을 주장하는 해밀턴에 대해 제퍼슨은 각 지역의 이익을 내세워 비판하였고, 위스키세의 부과에 대해 제퍼슨은 농민들의 삶을 근거로 비판하였다. 이렇듯 논쟁을 통해 발전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바로 1차 정당시스템의 형성에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b)의 답변은 두번째와 세번째 선택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령 "1820년대와 1840년대의 사회 개혁은 여러가지 변화를 수행했으나, 기본적으로 북부의 교육받은 중산층 중심의 사회개혁이었으므로 미국 전체의 민주주의의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라든지, "1830년대에 형성된 2차 정당시스템하에서, 휘그당은 미국 민주당에 대항하는 야당의 역할을 하지만, 뚜렷하게 독자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라는 데에 착안하는 것이다.

물론 a)에서의 선택지는 두번째, 혹은 세번

째 것이 될 수도 있다. 19세기 전반의 사회개혁을 미국식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꼽고 싶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개혁의 의지 덕에 몇 가지 눈에 띄는 사회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교육 개혁, 여성 참정권, 노예 해방 등과 같은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들은 이 시기의 사회개혁의 물결에 기인한 바가 크다" 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만약 세번째의 선택지를 고를 경우라면, "미국 민주당과 휘그당이 대립하던 1830년대에서 1840년대는 영토 확장과 노예제 허용의 문제, 연방과 주의 관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또한 이 시대에는 일반인들의 정치 참여가 매우 일상적이었다" 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a)는 건국초기인 1790년대의 정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 참여의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대표할 수 없다는 근거를 통해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러두기: 소피아 선생님의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칼럼은 3월, 4월 두 달간 AP US History 문제 분석 특강으로 9회 연재됩니다. AP US History 시험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와이즈프렘 (617-600-4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A CENA 후라이팬 4종

공중팬 2개+후라이팬 1개+뚜껑

다이하드 코팅보다 한 차분 열 손 반반사용과 코팅기술로 슬프고 오래 후라이팬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신장전 세라믹 하드코팅

라세나 24cm 후라이팬	라세나 25cm 후라이팬	라세나 28cm 공중팬	라세나 29cm 후라이팬
---------------	---------------	--------------	---------------

\$169  
 \$109

### mom's COOK

맘스쿡 건강식 마스터

25분만에 국과 찌꺼기까지 건강식 완성!

25분 요리완성

\$179  
 \$129

### 에코솔라 손주물 4종세트

\$219

### 냉새장은 쿠팰

\$90  
 \$75

보스톤코리아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보스톤코리아 이마트  
**BostonKorea eMart**

주문 전화 **617-955-9112**  
www.BostonKorea.com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오픈하우스는 집에 대한 궁금증 물어보는 기회

주택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관심 있는 동네의 오픈 하우스를 찾게 된다. 오픈 하우스는 단순히 집만 구경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집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오픈 하우스에 가기 전 철저한 준비는 필수라고 하겠다. 오픈 하우스에서 바이어가 꼭 물어봐야 할 10가지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오픈하는 몇 개나 받았나  
오픈 하우스에서 리스팅 에이전트의 얼굴 표정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에이전트가 매우 행복해 보인다면 아무 때나 오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 이미 누군가로부터 오픈을 받았다면 에이전트는 솔직하게 오픈 하우스를 찾은 바이어에게 사실대로 얘기해줄 것이다. 바이어로부터 추가 오픈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주택가격 변동성이 심한 편인가  
바이어가 관심을 가진 주택의 가격이 리스팅 후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만약 집값이 자주 바뀌었다면 셀러의 에이전트는 적극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셀러가 집을 최대한 빨리 팔려고 가격을 떨어트렸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가격 변동성이 확인되면 바이어 입장에서

옵션이 늘어난다. 보다 유연한 자세로 셀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3. 셀러가 이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지금까지 거주해온 동네가 안전하지 않거나, 학교 수준이 낮거나, 시끄러운 이웃 때문에 셀러가 정든 집을 떠나려고 한다면 리스팅 에이전트는 이 사실을 감추려 들 것이다.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꼭 해야 할 질문이다.
4. 주택이 매물로 나온지 얼마나 되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동산 리서치 전문 사이트 '트루리아 닷컴'(www.trulia.com)에 접속하거나 에이전트에게 로컬 MLS 사이트를 확인하게 하면 얻을 수 있다.
5. 집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셀러는 바이어에게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나 시 조례 위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셀러에게 이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도 좋다. 이 과정에서 바이어가 운이 좋으면 리스팅 에이전트가 자발적으로 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힐 것이다.
6. 집이 언제 업데이트 되었는가  
벽에 페인트를 새로 칠했거나 부엌에 최신

가전제품을 설치했을 경우 쉽게 눈에 띈다. 하지만 지붕의 나이, 집 내부의 와이어링 등에 대한 정보도 잊지 않도록 신경 쓴다.

7. 유틸리티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  
집 사이즈에 따라 매월 지출해야 하는 유틸리티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도 유틸리티 비용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깨끗이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옮길 생각을 한다면 더욱 그렇다. 오픈 하우스에서 그 집의 유틸리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꼭 물어보도록 한다.
8. 셀러가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하나  
셀러는 시간에 쫓겨 바이어의 오픈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아이들이 방학에 들어갈 때까지 주택 판매를 연기하길 원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 집을 빨리 팔기를 바랄 수도 있다. 셀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심분 활용해 유리한 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9. 어디에 가면 맛있는 먹을 거리를 찾을 수 있나  
로컬 음식점이나 커피숍에 가면 그 동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소가 있다면 바이어 역시 집을 산 후 똑같은 만족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오픈 하우스에서 리스팅 에이전트에

게 주민들이 가는 음식점이나, 커피숍, 사탕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

10. 이웃은 어떤가  
집을 사려고 하는 동네가 어린이들이 살기에 좋은 곳인가? 동네에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사는가? 주말이면 젊은이들로 북적대는 곳인가? 동네 성격에 크게 개의치 않는 바이어가 있는가 하면 주위에 어떤 이웃이 사는지 신경 쓰는 사람들도 많다. 이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픈 하우스에서 만나게 될 리스팅 에이전트이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법률 칼럼 - 그래픽 디자이너의 옵션-H-1B와 O비자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활동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신문이나 잡지의 내용을 디자인 하는 흔히 아는 그래픽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과 같은 작품을 관객과 가장 빨리 접하게 하는 포스터를 디자인 하는 포스터 디자이너, 점점 늘어나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게임을 더 실감나게 재미있게 해주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회사의 로고를 만들고 이미지를 결정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해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이너들까지...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활동 분야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래서인지 뉴욕을 포함한 미국 각지의 유명 미술 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 인기를 반영하듯 H-1B를 접수하는 다양한 직업군 중에 그래픽 디자이너는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자의 수가 많아 이민국에서 추첨을 할 것이라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상황에서 H-1B 말고 다른 합법적인 취업과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있다면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현명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H-1B를 지원할 예정이시거나 혹시라도 H-1B를 지원해 줄 고용주를 찾지 못하고 미국 체류 기간이 끝나가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다

면 O비자를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비자의 경우,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적정임금(prevaling wage)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자의 숫자에 있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년만 허용되는 H-1B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들 중 2015년에 있었던 그래픽 디자이너의 유사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고객 A양은 미국에 있는 주립 대학교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OPT기간 내내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며 H-1B를 스폰서해 줄 고용주를 찾다가 2월에 가까스로 취직이 되어 H-1B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양의 고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접수 후 접수된 H-1B 서류들이 너무 많아 추첨을 하며 학사를 가진 사람들의 경쟁률이 3:1이라는 소식이 저희는 A양은 H-1B가 안 되면 OPT 기간도 이제 끝나고 한국

에 돌아가야 할 것 같으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혹시라도 H-1B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하여 O비자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A양은 자신은 학교를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직장 경력도 짧고 전시회도 모두 그룹 전시회이며 "뛰어난 실력" 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A양의 포트폴리오와 이력서, 그리고 온라인 상 활동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 10년 프로 생활을 한 그래픽 디자이너의 이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 A양만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A양은 학생 대회이긴 하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은 꽤 유명한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O비자를 고려할 때 학생 대회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케이스에서 학생 대회라 할 지라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대회의 수준이 프로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상자들의 경력을 소개하여 이민국의 인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A양의 학생 대회 수상은 매우 반가운 경력이었습니다.  
또한, A양의 작품이 여러 블로그와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A양의 작품을 자신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에 포스팅을 하였고 그러면

서 연결된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유명 블로그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A양의 온라인 활동을 강조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A양은 H-1B추첨 내용을 기다리면서 저희와 함께 O비자 지원을 위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4월 말, H-1B에서 추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A양은 당황하지 않고 O비자를 신청하여 여름,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가능한 O비자,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분명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잡는 사람의 몫입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파나소닉 플로어 모델 대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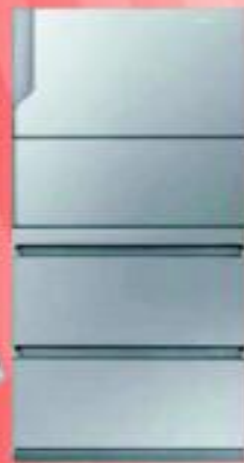
100세 동반자  
베델헬스전자



EP30067 ~~\$4,500~~  
**\$2,300**

EP30066 ~~\$4,000~~  
**\$1,700**

미동부 최대 마사지체어 종합 전시장



## SAMSUNG 김치 냉장고 BIG SALE

220L **\$1199** REG. \$1799  
121L **\$799** REG. \$999  
180L **\$999** REG. \$1300

삼성 김치냉장고  
장속의 시스템을 구현한  
메탈그라운드

고급 전기 방식 무료 증정  
무료 딜리버리, 3년 워런티



딤채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 구입시  
위니아 에어 워셔 무료 증정  
소형 구입시  
고급 전기 방식 무료 증정



직접 오셔서  
최첨단 마사지 체어  
무료 체험 해보세요!

단체 선물용 소형 연마기  
(5개 이상구입시) 구입시  
**최대 40% 할인**

전문 기술자 상주로  
(Part & Labor)  
**최대 5년 / Full Warranty**

안마의자 구입시  
조양다나, 반신욕기, 풍고 안마의자  
크레딧 드립니다

미동부공식 대리점



~~\$7,999~~  
**\$5,220**  
Made in Japan



Dream Wave  
Massage Chair

~~\$12,500~~  
**\$8,550**

선박순 10명  
Body Slimmer (\$1,200) 상당  
또는 삼성 김치냉장고  
무료 증정



Inada Flex 3s  
Massage Chair

Fuji Cyber Relax  
FJ-3650B



30개월  
**\$80/월**  
3년 Warranty

프락이 간편하여 휴대 선량로  
개발된 신제품, 4개의 마사지 롤러,  
강력한 진동 마사지 체어



Fuji Cyber Relax  
ZERO-G FJ-4600B

3D 방식 배구, 일본, 중국, 한국  
전용 마사지 7종, 한국인한테  
가장 인기 많은 제품

90개월  
**\$100/월**  
3년 Warranty



Fuji Cyber Relax  
FJ-5500

L자형 마사지  
기능, 대나무  
방열이마자  
및사지  
헤어  
기능등

90개월  
**\$100/월**  
3년 Warranty



Fuji Cyber Relax  
EC-3800

세계최초 4D 방식,  
초정밀 마사지 기법  
풍요로운 지르스

90개월  
**\$120/월**  
3년 Warranty



Panasonic EP-MA73  
ULTRA 3D 방식,  
다각도 마사지를,  
Multi Heat 기능,  
Hot Stone 치료기능

60개월  
**\$125/월**  
7년 Warranty



Panasonic EP-MA70  
3D 방식 레이 마사지  
7종과 스팀케어 기법

60개월  
**\$110/월**  
3년 Warranty



Apex Lotus

48개월  
**\$93/월**



Apex Reget

48개월  
**\$141/월**



Body Slimmer  
FJ-099  
Body  
Slimmer



Panasonic  
Core Trainer



HEALTH MATE  
반신욕기

**BIG SALE**  
**\$1,800**  
REG. \$2,400



무릎사우나  
무릎입구 높이 조절기능

**특별세일**  
**\$600 → \$500**

최대 저고 보유 / 최신헌  
**태진 노래방기계 대세일**



35,000원 이상 수취,  
상용급 넘쳐는 내장하연,  
신규 인력해 임대에도 가능

**BIG SALE**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64  
코라아 빌딩 1층 201-417-5350

베델전자  
한남제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9-809-1167

하이트론스  
HTRONS

1 Rensselaer Pl, Ridgefield NJ 07067  
201-417-5350 / 201-941-0024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물 안, 연매상 \$148,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10,000 주 6일 오픈, 풀 리커 면허증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셈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셈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프시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4월 Spring Break 프로그램**

1.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I class  
새로운 문제유형을 완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수업일정)  
10:00-1:00 강의  
(Evidence-Based Reading, Writing, Math  
without a calculator, Math with a calculator)  
1:00-2:00 점심식사  
2:00-5:00 문제풀이 연습
2. SAT II Subject test classes  
Math II C, Biology, Chemistry, Physics
3. 5월 AP 대비 전과목 수업가능
4. 초, 중학생을 위한 writing class  
5-8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소규모 class로 운영됩니다.  
(Goals)  
• Improve writing skills  
(Six traits: Ideas and Content, Organization,  
Word Choice, Conventions,  
Sentence Fluency, and Voice).  
• Improve critical thinking skills.  
• Prepare for school writing assignments  
기간: 4.16(토)~23(토) 8일간  
시간: 1:00-3:00  
  
Narrative Writing, Expository Writing,  
Technical Writing/Vocabulary,  
Persuasive Writing